



**COLLEGIATE**  
**DAY OF PRAYER**  
**GLOBAL**

**KOREAN**  
**한국인**

# 40—DAY PRAYER GUIDE

**2026**

# 서문

## 1823년 대학 기도 운동 & 글로벌 교회를 위한 초대

**DAVID SMITHERS - 머리말**

기도 콘서트 [연합기도] 운동은 지역 교회 생활 속에서 기도의 역할을 영원히 혁신시켰습니다. 이처럼 많은 종류의 기독교인들이 동시에, 그리고 대규모로 함께 기도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목사와 장로들은 처음으로 주간 또는 월간 기도 모임을 조직하는 방법을 배워 나갔습니다. 기도 콘서트는 단 한 세대 만에 연합 기도의 양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곧 부흥의 불씨가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기도 콘서트는 제1차 대각성(1st Great Awakening)의 열매이자 제2차 대각성(2nd Great Awakening)의 선구자였으며, 1792년부터 1910년까지 이어진 위대한 선교의 세기(Great Century of Missions)의 주요 촉매제 역할을 하였습니다.

1790년에서 1792년 경에 시작된 제2차 대각성은 스스로를 낫추고 기도할 준비가 된 공동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부흥은 아이비리그 대학들에까지 영향을 미친 후, 곧 미국 동부 해안 전체로 확산되었습니다. 이 강력한 성령님의 나타나심은 50년 넘게 지속되었으며, 대략 1792년부터 1845년 사이에 전국 각지에서 영적 부흥이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제2차 대각성이 가장 깊은 흔적을 남긴 곳 중 하나는 대학교이었습니다. 많은 대학의 초창기 역사 기록은 마치 영적 부흥의 역사책처럼 읽힙니다. 실제로 많은 학생 부흥이 수년 연속으로 일어났습니다. 이 반복되는 대학 부흥의 근원은 다시 살아난 기도 콘서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국가의 미래 지도자들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교회들은 이미 입증된 기도 콘서트 운동의 힘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1815년경, 대학을 위한 기도 콘서트는 예일, 윌리엄스, 브라운, 미들베리 등 뉴잉글랜드 대학 캠퍼스의 정기 행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1823년에는 미국의 거의 모든 주요 교단과 대학들이 대학을 위한 집중 기도일을 받아들였습니다. 당시 미국의 모든 대학은 교회에 의해 설립되었으므로 다음 세대 복음주의 지도자들을 배출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회와 국가 전체의 방향이 곧 대학생들의 영적인 성향과 성격을 따라갈 것이라 믿었습니다. “학생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국가도 달라진다”는 믿음이 바로 미국 교회가 전국적 대학을 위한 기도의 날을 확고히 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Henry C. Fish는 그의 『부흥 핸드북(Handbook of Revivals)』에서 대학생을 위한 이 특별 기도의 날의 지혜와 성공을 확인합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1823년부터 매년 2월의 마지막 목요일이, 하나님께서 우리 대학과 신학교 위에 하늘로부터 성령을 부어주시도록 특별히 간구하는 날로 합의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1824년과 1825년에는 다섯 개 대학에서 부흥이 일어났고, 1826년에는 여섯 개 대학, 1831년에는 열아홉 개 대학에서 부흥을 경험하였습니다. 한 대학에서는 기도 콘서트 당일 부흥이 시작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1835년에는 적어도 18건의 부흥이 여러 대학에서 보고되었습니다.”

## 19세기 말 그리고 그 이후

19세기 말까지, 이러한 반복된 학생 각성은 미국 최대 대학들의 문화와 도덕적 분위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 결과, 당시 많은 목사들이 자녀들이 안전하고 건전하게 회개하기를 바라며 교인들에게 자녀를 대학에 보내라고 격려했습니다.

200년이 넘는 오늘날에도, 대학을 위한 기도의 날은 미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에 강력한 초대장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날은 한 나라 전체에서 이 역사적인 기도 운동이 맺은 열매를 되새기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연합 기도가 혁신된 그 순간, 기도 콘서트는 단순히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 가능한 힘과 잠재력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했을 뿐만 아니라 온 나라를 하나님께 돌이키고 심판과 확실한 파멸로부터 구원하였습니다. 수만 명의 신자들이 하나님과 서로 다시 하나가 되었으며, 새로운 영적 지도자 세대를 일으켰고, 지치고 상심한 수많은 목사들의 부서진 꿈을 회복시켰으며, 잊혀지고 닿지 못한 이들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순종하기에 합당한 유일한 왕이자 구세주로 높였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기도가 절실합니다. 오늘날처럼 참된 부흥과 각성이 절실했던 때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조상들이 걸었던 옛 길로 다시 부르십니다. 이 세대의 필요는 반드시 응답되어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믿고 기도하라는 그 부름에 응답할 것입니까?

# 초대

2월 마지막 목요일, 여러분께 기도 대상으로 최소 3곳 이상의 대학 캠퍼스를 “입양”할 것을 초대합니다:

1. 여러분의 집 근처의 대학교
2. 여러분의 마음에 가까운 대학교 (모교, 자녀가 다니는 학교 등)
3. 다른 나라에 있는 대학교

대학 캠퍼스 입양 바로가기:

[CollegiateDayOfPrayer.org](http://CollegiateDayOfPrayer.org)



## 우리의 마음 준비하기: 느니웨의 각성에서 얻은 5가지 열쇠

“... 요나의 설교에 사람들이 회개하였으니 지금은 요나보다 훌륭하신 이가 여기 있도다.”  
— 마태복음 12:41”

수년 전, 한 목사님이 기도하는 신자들로 가득 찬 방에서 다음과 같이 가장 마음을 울리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우리의 기도 수준이 이 시기의 필요에 맞는가?”

기도의 양은 그 어느 때보다 늘어났지만, 더욱 중요한 질문은 “우리 기도의 깊이와 긴급함이 현재의 필요와 맞물리고 있는가?” 입니다.

요나의 시대 느니웨 사람들이 보여준 반응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요나에게 급박한 때에 전할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마흔 날 후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놀랍게도, 이는 구원의 희망이나 회개의 부름이 아니라 단순히 심판의 선언, 니느웨의 최후의 순간을 알리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로부터 온 이 마지막 부름에 직면한 느니웨 사람들은 다섯 가지 중요한 방식으로 반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백성과 땅에 크나큰 자비와 부흥이 쏟아졌습니다.

### 1. 하나님을 믿음

- 전혀 신앙이 없던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긴급함에 눈을 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 2. 금식을 선포함

- 이 세상의 즐거움, 기쁨, 산만함을 포기하고 겸손하게 자신들을 낮추며 하나님을 향한 절실한 필요에 온전히 집중하였습니다.

### 3. 모든 사람들이 굶은 벼룩을 입음

- 위대하든 작든 모든 사람들이 현재의 긴급함을 잊지 않도록 계속해서 불편함을 감내했습니다.

#### 4. 모든 사람이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음

- 이는 마치 하늘의 주목을 받지 못하면 백성이나 나라에 희망이 없을 것임을 알기에 구하는 절박한 자비의 외침이었습니다.

#### 5. 악행과 폭력에서 돌아섬

-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자신들의 무례하고 참담한 길들을 포기하며, 깊고 인생을 변화시키는 회개로 응답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와 악한 길에서 돌이킨 모습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어 그들이 위협받았던 멸망을 내리지 아니하셨다.” (요나 3:5-10)

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우리 역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하늘의 부름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이 40일을 시작하기 전, 우리의 마음 준비하기

- 하나님께 “우리 캠퍼스와 나라를 향한 하늘의 부름에 대해 내가 어떻게 응답해야 할지” 물어보세요.
- 이 긴급한 시기에 필요한 기도, 겸손, 간구, 회개의 수준이 어떠해야 하는지 기록해 보세요.
- 성령님의 은혜로 이 40일 동안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스스로 다짐하세요.



CHECK FRONT  
FOR  
NEWS

KAPPA  
CHI  
ALPHA

# DAY 1

## 절박하고 긴급한 기도

### JONATHAN “JP” POKLUDA

JP는 텍사스 웨이코의 *Harris Creek Baptist Church*의 수석 목사이며, 전 *The Porch* 리더입니다. 그는 아내 *Monica*와 세 자녀와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절박함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라는 부르심입니다. 부흥은 거창한 행위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고 절박한 기도 즉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갈망에서 시작됩니다.

전 세계 대학 캠퍼스에서 젊은이들은 불안 외로움 그리고 결국 사라질 것들에 자신의 가치를 두려는 압박 속에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며 그분을 찾고 주님의 진리 위에 굳건히 서며 길 잃은 친구 가족과 동료들에게 다가갈 수 있음을 믿으라고 초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찾을 만할 때 찾아야 하며,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 이사야 55:6

만약 우리 주변의 모든 마음이 예수의 사랑과 사명으로 깨어난다면 어떨까요?

부흥은 지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함께 시작해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순간 부흥이 시작됩니다.

## 기도 제목:

- 대학 캠퍼스에 부흥이 일어나도록 기도하기 (하박국 3:2)
- 학생들이 예수님과 만남을 경험하고, 진정한 소속감과 정체성을 깨닫도록 기도하기 (요한복음 10:10)
- 신자들이 믿음 안에서 굳게 서며, 모든 도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인내하도록 기도하기 (데살로니가전서 5:16-18)

# DAY 2

Jennie는 *IF: Gathering*과 *Gather25*의 창립자이자 비전가이며,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신다면, 왜 내가 기도해야 할까요?”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기도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때로는 기도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기도 방법을 배우지 못했거나, 기도가 정말 변화를 가져오는지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온 마음으로 믿는 바는: 기도는 우리 삶을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죄와 싸우며, 세상에 변화를 일으키는 가장 위대한 도구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때로 혼란스럽거나 위험해 보일 수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담대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성령님께서 기적적으로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우리가 그분께 크게 달라고 요청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의 바람은 전 세계 교회가 지금보다 더욱 크고 담대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위험 부담을 감수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실 것을 필요로 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 전 세계 성도들의 마음을 새롭고 절박하게 깨우실 하나님
- 사람들이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회개를 일으키실 하나님
- 모든 대륙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55억 아직 믿지

“그러므로 서로 죄를  
고백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 야고보서 5:16

- 많은 이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많은 이들이 이 자리에서 머뭇거립니다. 우리는 많이 안타까워 하지만 하나님께 큰 일을 요청하는 것이 너무 두려워 요청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실까 봐 혹은 우리의 기도가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너무 큰 기도제목은 위험부담이 크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변화를 일으킵니다. 야고보서 5장은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고 효과적”임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담대한 기도를 위험을 무릅쓰고 드릴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분께는 그 어느 것도 너무 큰 것이 없습니다! 비록 응답이 우리가 상상하거나 바라던 대로 정확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기뻐하시며 우리의 담대한 기도에 감동하십니다.

## 기도 제목:

- 전 대륙에 걸쳐 성령님께서 기적적으로 역사하시도록 담대하게 요청하기
- 전 세계 신자들에게 새롭게 복음을 전할 열정을 불어넣어 주도록 기도하기
-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며 믿음으로 돌이키도록 기도하기

# DAY 3

## “무엇이라도”에서 “모든 것”으로 나아가자

JON TYSON

Jon은 호주 애들레이드에서 미국으로 이주하여 현재 Church of the City New York의 수석 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절박한 한 아버지가, 귀신에 시달리는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귀신은 소년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불과 물 속에 뛰어들게 하며 그를 파멸시키려 합니다. 아버지는 “만일 주께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면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소서” (마가복음 9:22)라며 간절히 간구 합니다. 모든 수단을 다 써보고 희망의 끝자락에서 도움받을 수 있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자 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간단하지만 심오한 대답을 주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 대화는 “무엇이든지”에서 “모든 것”으로 나아가는 중대한 전환점을 나타냅니다. 처음 아버지가 “무엇이든지” 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한정적인 시각을 드러냅니다. 아마도 아버지는 아들의 고통을 약간이나마 덜어줄 작은 위로를 기대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시선을 전환시켜, “무엇이든지”가 아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임을 믿으라고 격려하십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에도 이러한 이야기와 동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적은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무언가 조금이라도 도와주시길 바라며 기도합니다. 어려운

**“네가 할 수 있느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 마가복음 9:23

순간에 약간의 평화 지친 마음에 주는 작은 격, 또는 생활의 터전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최소한의 공급을 요청하곤 합니다. 이러한 기도는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때때로 우리의 믿음에 한계를 두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음을 믿지만, 과연 그분이 모든 것을 변화시킬 힘을 가졌다고 진정으로 믿고 있나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분에 대한 믿음을 더 크게 가질 것을 요구하십니다.

작고 단편적인 기적을 위해서만 예수님을 찾지 말고 그분의 무한한 능력을 믿으며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진리를 온전히 받아들이라고 하십니다. 이는 예수님을 최후의 수단이 아닌 온갖 변화와 회복의 근원으로 인식하는 전환을 의미합니다.

이 전환은 우리가 가진 한정된 시각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스스로 제한하는 관점을 버릴 것을 요구합니다. 마가복음 9장의 아버지는 의심으로 시작했으나 겨자씨 같은 믿음으로 “내가 믿습니다. 나의 불신을

도와주세요”라고 외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것으로 예수님은 귀신을 내쫓고 소년을 완전히 고치셨습니다. 아버지가 “무엇이든지” 원했던 한정된 시각은 예수님의 “모든 것”의 능력과 만남으로 변화되었습니다.

## 기도 제목:

- 예수님께 불신을 극복하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기
-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무한한 사랑과 능력을 지닌 분으로 보도록 눈을 열어 달라고 기도하기
- 주님께 “나는 어떠한 것에도 만족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모든 것’을 믿고 싶습니다”라고 선언하기

# DAY 4

James는 *InterVarsity USA*의 전략 및 혁신 부사장으로 섬기며, LA 대도시권에서 아내와 세 자녀와 함께 생활합니다.

부흥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역사 속 부흥의 모습을 연구하고, 그 역동적인것을 배우며 기도하였고, 우리 운동에 도움이 될 정의를 내리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9개월 간의 고민 끝에 다음과 같이 정의하게 되었습니다:

말씀 행위 능력의 돌파의 계절  
하나님의 나라의 체험과 열매의 새로운 수준을  
여는 때

부흥은 내면과 외면, 내부와 외부 모두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영혼은 부흥을 경험할 수 있으나 그 부흥은 반드시 사명으로 이어져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단순히 개인의 변화에 머무르지 않고 관계와 공동체 사회 전반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세상 속으로 퍼져나가 새로운 정상 즉 선하고 공의로운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부흥은 또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부흥은 단 한순간의 사건이 아니라 운동이며 대개 한 사람의 영혼에서 시작됩니다. 신학교수 Malcolm McDow와 Alvin Reid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흥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에서 시작하여 동심원의 확대를 결실을 맺는다 . . . 부흥은 하나님과 진지하게 동행하며 불타오르는 그 한 사람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서 시작한다.”

이 같은 패턴을 통해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역사상

“주의 백성이 주 안에서  
기뻐하게 하시려고 다시  
우리를 살리시지  
아니하겠느냐?”

— 시편 85:6

어떠한 부흥도 소생된 사람이 없이 시작된 적은 없다는 것ですよ. 아주 실제적인 의미에서 부흥은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의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20세기 초 전도사 Rodney “Gypsy” Smith는 부흥을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집으로 가라. 방에 스스로를 가두고 바닥 중앙에 무릎 꿇은 다음 분필로 자기 자신을 둘러싸는 원을 그려라. 그리고 그 원 안에서 열정적이고 부서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흥이 일어나도록 간절히 기도하라.”

우리는 부흥의 개인적 경험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부흥은 한 줌의 씨앗과 같으며 절박한 마음의 땅에서 작게 시작되지만 그 씨앗은 점차 확산되어 공동체와 심지어 나라 전체를 품을 수 있는 운동으로 자라납니다.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부흥을 시작해 주실 것을 간구하시겠습니까?

## 기도 제목:

- 내 마음 속에 부흥을 시작할 방법을 하나님께 구하기
- 나의 개인적 부흥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 부흥의 촉매제가 되도록 기도하기
- 개인적 부흥이 나의 공동체에서 커다란 부흥의 불길로 번지도록 기도하기

# DAY 5

느부갓네살의 시대와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때, 네 명의 유대인 십대 -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 는 느부갓네살의 리더십 학교에 들어가 바빌론의 언어와 문학을 배우며 훈련받았습니다. 이 훈련의 한 부분은 매일 왕이 선택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한때 노예 국가에서 몇몇 젊은 지도자들을 데려다가 바벨론의 “아이비리그” 대학으로 전액 장학금을 주며, 왕의 궁궐과 식당에서 생활하게 한 목적은 무엇이였을까요?

저는 느부갓네살이 이 미래 지도자들에게 바빌론의 안락함과 쾌락에 대한 욕구를 심어주어, 유대인의 유산을 보존하고자 하는 노력과 율법에 따른 분리된 삶을 살겠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즉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그분을 아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 에베소서 1:17

**“이 네 청년에게 하나님은 모든 문학과 지혜에 관한 학문과 능력을 주셨고, 다니엘에게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닫는 지혜를 주셨다.”**

– 다니엘 1:17

열의를 약화시키려 했다고 믿습니다. 그분은 이들이 바벨론의 정신과 문화를 받아들이는 데 대한 저항을 무디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바벨론 대학에 입학함과 동시에 이 네 명의 유대인 십대는 바벨론식 이름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라는 뜻의 다니엘은 벨드사살(Belteshazzar)로 개명되었으며, 이는 “숙녀여, 왕을 보호하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의 하나냐는 샤드락(-Shadrach)으로,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의미로 개명되었습니다. “하나님 같은 분은 누구인가”라는 뜻의 미사엘은 메삭(Meshach)으로, “나는 멸시받고, 경멸당하며, 굴욕을 받는다”는 의미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뜻의 아사라는 아벳느고(A-bednego) 로, “네보의 종”이라는 의미로 개명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이들의 정체성 자체를 재정의하고자 하였습니다.

오늘날의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인 대학들 속에서 사탄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거룩함에 대한 열정과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헌신을 약화시키며 눈의 정욕 육체의 욕망 이생의 자랑에 대한 저항을 무디게 하려고 합니다. 바벨론 시대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에게 적용되었던 거룩한 원칙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유효합니다. 이 젊은 지도자들은 장기간의 금식과 정기적인 기도를 통해 헌신적인 삶의 방식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왕의 호화로운 식사를 포기하고 바벨론 대학에서 3년 동안 채소 위주의 금식 기도 생활을 실천하였습니다. 음식 호의 안락이라는 쾌락을 거부하는 법을 배우면서 타협이나 남을 기쁘게 하는 것이기적 야망이라는 부당한 쾌락 역시 거부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금식과 기도를 통한 이러한 생활 방식 속에서 주님께서 그들의 배고픔을 다스리심으로써 하나님은 그들에게 “모든 문학과 지혜에 관한 학문과 능력”을 동료들보다 10배 더 주셔서 역사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하늘의 지혜를 가진 지도자가 되게 하였습니다.

## 기도 제목:

- 대학 캠퍼스에서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구별되어 금식과 기도로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인물이 일어나도록 기도하기
-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가진 지도자들이 캠퍼스에서 일어나도록 기도하기



# DAY 6

Chris는 Pray Campus [America]의 일원으로, 대학 캠퍼스에서 낮과 밤으로 예배, 기도, 부흥 가족을 위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 함께하는 친구들의 연합모임입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캠퍼스에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한다면, 새로운 물결이 임할 길을 준비해야 합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는 바와 같이, 주님의 성령의 부으심과 임재의 계시는 먼저 회개와 거룩함의 조건에 달려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분의 메시지와 침례 모두 회개의 메시지였습니다. 온 지역의 사람들이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의 징표로 침례를 받으러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요한은 단순히 고백하라고만 한 것이 아니라 죄에서 돌이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촉구하였습니다 (마태복음 3:2-3, 5-6, 8). 이러한 마음의 준비는 예수님의 사역이 이스라엘에 드러나고 하늘이 온 백성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아주사 거리 부흥의 Frank Bartlema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부흥의 깊이는 그 부흥이 이룩하는 회개의 영에 의해 정확히 결정된다.”

“...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 히브리서 12:14b

“그러므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는  
너희 죄가 지워짐으로써  
주님으로부터 새 힘이  
임하게 하려 하심이라...”

— 사도행전 3:19

정말로, 우리 가운데 깊은 회개 없이는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1904년 웨일스에 위대한 부흥이 일어났을 때, “웨일스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파급력이 큰 부흥이 일어났다. 이교도들이 회심하고, 술꾼과 도둑, 도박꾼들이 구원받았으며, 수천 명이 정상적인 사회로 회복되었다. 끔찍한 죄에 대한 고백이 사방에서 들렸고, 오래된 빛을 갠고, 극장의 후원이 끊어지기도 하였다. 탄광에서 일하던 노새들도 익숙치 않은 부드러움으로 자신들을 다루는 광부들의 말귀를 알아듣지 못해 일을 못했다. 불과 5주 만에 2만 명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다.”

1년이 채 안 되어, 10만 명이 넘는 영혼이 이 강력한 성령님의 나타남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웨일스 부흥에 앞서 이반 로버츠는 성령님을 받기 위한 네 가지 조건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였는데 이것이 이 부흥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모든 숨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

의심되는 모든 것을 내 삶에서 제거하라  
완전한 항복 -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말하고  
행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고백하라

과연 우리는 주님의 길을 준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회개 없이는 새롭게 되는 능력이 임할 수 없으며 거룩함  
없이 아무도 주를 볼 수 없습니다!

## 기도 제목:

- 시편 139:23-24를 읽으며,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살피시고 드러내 달라고 기도하기 각자의 마음 속에서 “주님, 내 안에 완악한 부분이 있나요? 내가 진실로 주님께 온전히 항복하지 않은 것이 있나요?” 묻고 천천히 점검하기. 성령님께서 다루고자 하시는 모든 것을 드러내실 때까지 서두르지 않고 기다리며, 드러난 죄들을 하나님과 서로 고백하며 기도하기 (야고보서 5:16)
- 각 죄를 고백한 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예전의 인식 사고 믿음 그리고 삶의 방식을 대신하여 당신이 어떻게 보고 생각하고 믿고 그리고 살기 원하시는지 알려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당신이 입양한 캠퍼스]에 회개와 거룩함의 움직임을 일으켜 주셔서 모든 마음이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도록 하옵소서! 이 캠퍼스가 예배처소가 되고 모든 마음이 산 제물되어 하늘의 불이 부어지게 하소서!”

# 당신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나요?

TIAGO SUGUIHARA

Tiago는 브라질 상파울루에 있는 Relevans Church의 수석 목사입니다.

## DAY 7

우리의 영적 여정 속에서 우리는 설교 성경 공부 그리고 개인 독서를 통해 하나님에 관한 방대한 지식을 쌓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질문이 남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분을 알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해 지적으로 아는 것 즉 그분의 역사와 성품을 이해하는 것과는 달리 그분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 그분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정보를 풍부하게 채워줄 수는 있지만 친밀감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 머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영적으로는 충분히 정보가 있으면서도 관계적으로는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한 지식 이상 친밀함으로 초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단지 그분에 대해 아는 것을 넘어서 진정으로 그분을 개인적으로 깊고 진실하게 알아가길 원하십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내면의 갈증을 채울 무언가를 찾는 영적으로 목마른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직업 인간관계 또는 종교에 의존하여 그 갈증을 채우려고 하지만 결국 그들은 여전히 공허함을 느낍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이들이 진정한 만족을 찾을 수 있는 곳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외한 모든 곳에서 만족을 찾으려 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한 지식이나 피상적인 종교에 이끌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바로 “갈망”에 이끌리십니다. 역사를 통틀어 그분은 사람들이 그분을 진정으로 갈망하는 곳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부흥을 가져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강렬하고 쉽게 채워지지 않는 갈망을 가진 자들을 찾으십니다. 이 갈망은 오직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니라.”

— 마태복음 5:6

그분의 임재 안에서만 만족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강제로 나오게 할 수 없지만 열정적으로 주님을 찾는 마음이 있는 곳에는 기꺼이 임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은 그분의 임재를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며 우리를 통해 주변 세상도 변화시킵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개인적으로 알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단지 그분에 대해 아는 것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영적 갈증을 임시방편으로 채우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주님, 저는 주님에 대한 단순한 지식 이상을 원합니다. 제 안에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깊고 쉽게 채워지지 않는 열망을 일으켜 주세요. 제게 주님을 찾고 주님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체험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다른 곳에서 만족을 찾은 제 자신을 용서하여 주시고 제 삶이 주님의 성령을 환영하는 곳이 되어 매일 주님을 더욱 갈망하게 해주세요. 아멘.”

## 기도 제목:

- 기독교인의 마음 속에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로 인도하는 깊은 갈증과 목마름이 일어나도록 기도하기
-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피상적인 지식을 넘어서 친밀함에 대한 열망을 일으켜 진정한 변화를 이루게 하시도록 기도하기
- 심지어 가장 완고한 마음까지도 부드럽게 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움직임을 일어나 “하나님 계시다!”라고 선포하게 하도록 기도하기

# DAY 8

이제 사무엘이라는 어린 청년이 엘리 밑에서 주님께 섬기고 있었더니, 그 때 주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매 사무엘이 말하되 “여기 있습니다!”하고 달려가 엘리에게 말하되, “당신이 부르셨으니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는 “내가 부르지 않았다; 다시 눕거라” 하였으므로 사무엘은 눕고, 주께서 다시 세 번째로 사무엘을 부르시자, 사무엘은 일어나 엘리에게 갔더니, 그 때 엘리가 깨닫고 사무엘에게 말하길, “가서 눕거라. 만일 주께서 네게 부르시면,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고 있나이다’라고 말하라.” 사무엘은 자기 자리에 눕고, 주께서 다른 때처럼 서서 사무엘을 부르시되 “사무엘! 사무엘!” 하시매, 사무엘이 대답하길,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고 있나이다.” 그 후 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 사무엘상 3:1, 7-10

”

Sarah는 *The Navigators*와 함께 대학 전역의 국가 기도 코디네이터로 섬기며, 남편과 함께 뉴잉글랜드와 뉴욕에서 캠퍼스 사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처음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방식을 묵상할 때마다 기도 생활이 풍부하여 주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사람들도 처음은 다 시작이 있었다는 사실이 제게 큰 격려가 됩니다. 우리 중 누가 주님의 음성을 듣거나 머릿속의 다른 목소리들 속에서 구분하기 어려워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먼저 다가오시고 사무엘이 여러 번 잘못 듣더라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이 여러 차례 잘못 들었다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무엘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말씀하신 방식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엘리를 사용하여 사무엘이 그분의 음성을 분별하고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신다고 믿나요?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나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주의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마음을 기르는 데서 시작됩니다.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안을 참고하십시오:

1. 삶의 소음 속에서 잠시 벗어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을 묵상하며 당신의 상처 갈망 일상의 현실들을 주님과 함께 기록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지십시오. 대학생 시절 저는 금요일 오후마다 자전거를 타고 조용한 벤치나 카페에 들어가 주님의 말씀을 읽고 일기를 쓰며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즐겼습니다—마치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과 같이! 이러한 시간들과 매일의 짧은 묵상 시간을 통해 저는 주님의 마음과 목소리를 알아가기 시작했고 제 자신의 삶을 주님께 맡기게 되었습니다.

2. 사무엘처럼 저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다른 목소리들(예: 제 자신의, 문화의, 부모님의 목소리) 사이에서 구분할 수 있도록 도와줄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잠시 동안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음성을 알아갈 수

있을지 연결해 보십시오. 서로의 삶을 나누고 성경을 함께 읽으며 기도하십시오. 이 세 가지 단순한 실천이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과 하나님의 나라에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 기도 제목:

- 사무엘의 이야기(사무엘상 3장)를 깊이 묵상하며, 그 의미가 당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기도하기
- “예수님, 이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제게 어떻게 자신을 나타내시는지 보여 주소서”라고 기도하기
- 주님께서 당신의 마음, 믿음, 또는 행위에 대해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나타내 달라고 간구하기

# DAY 9

## 기도로 일으켜진 깨달음 있는 자들

**BELINDA GRACIA**

Belinda는 인도네시아의 JARS  
International Ministry 소속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무언가를 요청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회복과 부흥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때에 맞추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묻기보다는 이 세대와 나라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부어주시길 원하시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분의 뜻에 맞추고 “예”라는 결단으로 그 일치 속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주신 모든 은사들 외에도 다니엘은 “깨달음 있는 사람으로 행할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악인의 압박 사회와 문화의 부패 가운데에서도 다니엘은 기도의 자리에서 고정된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마음을 맞추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씨름하였고 그분과의 친밀함을 통해 하나님을 알았기에 담대하게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상황이 어떻게 보이든 하나님이 만물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기도하고 그에 맞춰 행동했습니다.

저 또한 제 젊음을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을 위해 희생하면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제 기도를 저에게 순종하라는 초대로 바꾸셨습니다. 대학 졸업 직후,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위해 제 삶을 내어놓으라고 부르셨습니다. 2014년에 해외 선교대학에 가겠다는 제 계획을 포기하고 “당신의 나라를 위해, 당신의 나라에서 무언가를 세우겠느냐?”라는 질문으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 그러나 그들의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강해져서 행동할 것이다.”**

**— 다니엘 11:32B**

**“이 네 청년에게  
하나님께서 온갖  
문학과 학문의 지식과  
이해를 주셨으며,  
다니엘은 온갖 환상과  
꿈을 깨달을 수  
있었다.”**

**— 다니엘 1:17**

저는 이 길이 얼마나 반문화적이며 대담한 결단이 필요한지 전혀 예상치 못했습니다. 우리 교회 기도실에서 친구들과 함께 우리는 우리의 사역을 세우기로 결단하였고 그 결과 인도네시아의 여러 섬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온전히 주님을 위해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예”라고 말하는 깨달음 있는 이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위해 힘쓰며 인도네시아가 받는 나라에서 보내는 나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2020년 코로나19와 싸우던 중,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기도의 응답이 되어 조직에서의 리더십을 내려놓고 서아시아의 어느 나라로 먼저 파송됨으로써 많은 인도네시아인들이 보내지도록 길을 제시하겠느냐?” 수년 동안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예’라고 말하는 담대함을 갖고 우리 세대의 시기와 뜻을 이해한 결과 이제 우리는 그 ‘예’의 파장이 다음 세대까지 미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 기도 제목:

- 이 세대에서 깨달음 있는 남녀가 일어나 기도의 자리에서 마음을 맞추고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 싸우며 눈물을 흘리고 기도함으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기
- 캠퍼스에서 이 남녀들이 사회 문화 혹은 외부 압력 대신 오직 주님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도록 담대하게 기도하기
- 성령님을 통해 이 세대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증대되어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에 열정을 가지고 서도록 기도하기

# DAY 10

Connie는 *InterVarsity Christian Fellowship*의 국가 중보 기도 국장입니다. 32년의 결혼 생활을 하였으며, 남편과 함께 콜로라도에서 자녀와 손주와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가 성령님의 임재를 가로막을 수 있음을 압니다. 고백과 회개는 예수님께서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실 때, 성령님이 넘치도록 임할 수 있는 공간을 준비시켜 주기 때문에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이는 개인적 그리고 공동체적으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레미야, 모세, 다니엘, 느헤미야와 같이 기도를 통해 우리는 우리 나라와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중보 기도의 '동일시' 원칙이며, 부흥을 위해 기도할 때 중요한 요소입니다. 선지자들은 백성의 죄를 애 통하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호소하였습니다—예를 들어 예루살렘 성벽에서 기도하는 하박국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역사적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더욱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지 못하게 막는 죄들은 무엇입니까? 그것들을 식별할 수 있습니까? 종종 탐욕, 부패, 불의와 같은 뚜렷하고 명백한 악의 패턴들이 나타나지만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여 거의 보지 못하는 미묘한 죄악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러한 미묘한 죄악 패턴에 자신도 모르게 동참하기도 합니다. 현대와 역사 속의 부흥은 항상 회개의 시기가 선행되었습니다. 회개는 주님께서 기도하는 바를 더 깊이 깨닫게 하시기 전의 단계입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의  
사악함과 조상들의  
죄를 고백하오니,  
우리가 참으로 주님께  
범하였나이다.”

— 예레미야 14:20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우리의 죄악을 인정할 때 그 안에는 진정한 영적 힘이 있습니다. 악은 어둠 속에 감춰지기를 좋아합니다. 우리의 죄를 드러내면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치유의 빛이 비추어져 사람들 패턴들 그리고 요새들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을 기뻐하시며 적도 겸손 앞에는 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는 점차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말라기 4:6과 역대하 7:14는 겸손한 자세가 땅의 치유로 이어짐을 시사합니다.

우리 자신, 우리 지역사회, 그리고 우리 나라를 위해 겸손하게 회개할 때 큰 자유가 임하고 성령을 맞이할 수 있는 문이 열릴 것입니다!

## 기도 제목:

-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한 나라의 시민으로서 어떻게 회개할 것인지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기
-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적극적으로 회개하며 행동하기
-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을 주시도록 기도하기



# DAY 11

## 하나 되게 하소서: 인증 화해 NIKO PEELE

Niko는 Ignite Movement의 창립자이자 디렉터로, 대학 및 청년 사역을 통해 도시와 캠퍼스에 기독교 공동체를 세우고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민족 간의 분쟁을 치유하는 유일한 참된 해답은 예수님입니다. 다인종, 다문화 교회의 공개적인 증언을 통해 드러나는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우리와 아버지 사이의 수직적 화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수평적 화해도 간구하십니다. 바로 교회가 하나님과 서로 하나 됨으로써 세상이 예수님이 인류 구속을 위해 보내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성도를 화해와 치유의 사역에 초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18). 이 사역은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절실한지 잘 드러냅니다! 이 사역은 먼저 우리의 개인적인 편견과 선입견을 직시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 그분께서 우리 마음을 깊이 정결하게 하시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눈에 모든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사랑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개인적인 편견과 선호함을 넘어서 서로를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때 강력한 하나 됨이 터져 나와 세상을 하나님의 구원 은혜 속으로 인도할 것임을 아십니다!

“또 나를 믿게 될 이들을 위하여 너희를 위해 기도하노니, 아버지여,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는 세상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 함이라.”

— 요한복음 3:19



## 기도 제목:

- 자신을 위해 기도하기: 하나님께서 당신이 인지하지 못하는 개인적인 편견을 밝혀 주시고,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하기
- 요한복음 17:20-21의 기도를 통해, 교회 공동체와 함께 예수님의 기도를 나누기

# DAY 12

Natalia는 콜롬비아 보고타의 Comunidad Cristiana de Fe 소속입니다.

앱이나 나침반이 없던 시절, 별들은 길을 찾기 위한 항해 도구였습니다. 이제 성경에 등장하는 각 인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을 별에 비유함으로써, 그들은 우리가 길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기준점(REFERENCE POINT)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기준점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며,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준점을 선택했나요?

대학생으로서 여러분은 인생의 나머지를 좌우할 수많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불안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진 특권과 책임을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의 사회는 항상 사람들을 미성숙한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현재 사회는 모든 이들이 현재에만 머무르며, 의도적으로 인생을 구축하지 않고 방황하도록 유혹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스스로 길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누군가 대신 선택할 것이고, 더 나아가 여러분은 방향 없이 헤매며 결코 목적지에 다다를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 속 인물들은 단점과 고난, 꿈과 열망을 가진 진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하나님과 함께 엮여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삶을 공부할 때, 우리의 길을 인도할 강력한 교훈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기준점 중 하나는 다니엘입니다. 지배국에서 그는 살아남고 성공하였습니다. 그를 돋보이게 한 몇 가지 특징들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들은 우리의 삶을 위한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 그는 왕의 아들, 즉 왕자였습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를 항상 기억하고, 하늘 나라의 마인드를 간직해야 합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하늘의 빛처럼  
빛나며, 많은  
사람들을 의로  
인도하는 자들은  
영원토록 별처럼  
빛나리라.”

— 다니엘 12:3

- 그는 흠 없으며 정직했습니다. 타협 없이 올바른 일을 선택하는 것은 당신의 정체성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 그는 지혜로웠고 배우기를 즐겼습니다. 지혜는 좋은 선택과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입니다. 단지 똑똑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 그는 기도의 생활을 했습니다. 성경 속 위대한 인물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분께 직접 말씀드리십시오.

여러분도 기준점이 되십시오! 천문학에 따르면, 매일 새로운 별들이 탄생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세대를 위한 기준점이 되도록 부름받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여러분의 결정은 여러분의 미래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후대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 기도 제목:

- 자신의 삶에 올바른 기준점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기
- 여러분과 친구들이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이 가졌던 특성과 기도의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기
- 여러분이 후대에 모범이 되는 좋은 기준점이 되도록 기도하기

#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SETH S. KIM

Seth는 홍콩을 기반으로 “복음이 없는  
곳에 가라”는 도전을 주며 *Arise Asia*  
의 공동 창립자이자 부사장입니다.

## DAY 13

여러분은 매일 아침 눈을 뜨며 어떤 목적 의식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살고 있는 새로운 날에 대해 기뻐하십니까? 현실적으로, 우리 중 많은 이들이 강한 목적 의식을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가 목적 없이 느끼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목적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목적을 찾는 여정을 너무나도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여 진행해 왔으며, “하나님의 마음에 무엇이 있으며, 세상에서 그분은 무엇을 하고 계신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창조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사랑함으로써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분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사도행전 13:36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소아시아 안디옥에서 다윗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목적을 이뤘으며, 그 후 죽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죽습니다. 우리의 유한함을 인식할 때, 우리는 매일을 더 큰 목적 의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시편 39:4에서는 “여호와여, 내 땅에서의 내 시간이 얼마나 짧은지 내게 깨닫게 하시며, 내 날들이 정해졌음을 내게 알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그분을 위해 살며, 그분을 섬기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10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셔서, 그분이 오래전에 예비하신 선한 일을 우리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기록되어

“다윗이 그의 세대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다한 후,  
잠들었고 조상들과 함께  
문혔으며 그의 몸은  
부패하였도다.”

— 사도행전 13:36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면, 더 큰 목적을 잃고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세대를 위해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해 답변해야 합니다. 다윗은 그의 세대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다한 후 돌아가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아들의 세대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았으나, 자신이 살면서 이루어낸 것에 대해 보고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모세는 그의 세대를 섬기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도록 권한을 넘겼습니다.

역사를 통틀어,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분을 사랑하고 섬길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세대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세대에서 부르사 그분의 위대한 목적을 이루도록 세우고 계실 수 있습니까?

## 기도 제목:

-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여러분의 결심이 확고해지도록 기도하기 (잠언 19:21; 이사야 46:10)
- 하나님의 대사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응답하여 살 수 있도록 기도하기 (마태복음 28:19-20; 사도행전 1:8)
- 여러분이 속한 세대를 책임지고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기 (시편 145:4; 여호수아 1:1-9)

# DAY 14

Tonya는 Unite US의 창립자이자 비전가입니다.

오늘날의 세상에서, Z세대는 학업의 부담, 소셜 미디어의 영향, 정체성의 혼란, 그리고 정신 건강 문제 등 엄청난 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많은 대학생들에게 인생은 혼란스럽고 무질서하게 느껴집니다. 제가 AUBURN 대학교에서 대학생들을 멘토링하면서 직접 본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하나님은 Z세대를 분명한 목적과 힘으로 일어나도록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분이 모든 생명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그 계획은 번영, 희망, 그리고 밝은 미래로 인도함을 확신시켜 줍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에게, 그들이 직면한 도전으로 인해 부담을 느끼기 쉽지만, 우리 역시 믿음으로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며, 이 세대 가운데 전에 없던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다음 세대는 길 잃은 자들이 아니며, 부흥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그들의 삶에 목적인 정체성이 계시되도록 중보 기도해야 합니다. Z세대가 의미를 찾기 어려워할 때, 그들이 하나님께서 깊이 사랑하시는 존재들이며, 각자에게 독특하고 중요한 부르심이 있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깨닫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젊은이들이 주님의 마음을 체험하고, 부흥을 통해 그분의 완전한 목적에 이르게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라고 초대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을 내가 아나니, 이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니라.”

— 예레미야 29:11

그들의 학업 성취나 개인적인 안녕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고 변화를 가져오는 만남을 위한 것입니다. 그 곳에서 그들은 진정한 정체성과 자유, 그리고 올바른 방향을 찾게 될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나라에 역사상 가장 큰 부흥이 오늘 우리가 들어 올리는 젊은이들의 마음을 통해 일어날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신실하게 서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강력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 기도 제목:

- 개인 부흥을 위해 기도하기: “주님, 다음 세대의 마음을 깨워 주셔서 주님을 깊이 아는 경험을 하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소서.” (예레미야 29:13)
- 목적과 분명한 방향을 위해 기도하기: “아버지, 각 젊은이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목적을 나타내시고, 그들이 주님의 눈으로 자신을 보며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게 하소서.” (에베소서 2:10)
- 담대함과 믿음을 위해 기도하기: “주님, 우리 교회가 굳건히 서서 다음 세대를 위해 중보 기도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주님의 대사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로마서 15:13)

# DAY 15

## 깨어남의 길 DAVID THOMAS

David는 Seedbed 소속 New Room을 이끄는 데 도움을 주며, 그의 아내 Karen과 함께 켄터키 주 렉싱턴에 거주하고 있으며 세 명의 성인 자녀의 부모입니다.

대학 기도일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일이 대학 캠퍼스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이비리그라고 부르는 대부분의 식민지 대학들은 제1차 대각성의 풍성한 열매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헤이스택 부흥, 학생 자원봉사 운동, 예일에서의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열정적인 기도, 그리고 그 외 여러 이야기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1730년대 옥스포드 대학에서 소수의 대학생들이 “메소디스트(METHODIST)”라는 멸시를 감수하며 진정한 기독교를 위해 모이기 시작했던 웨슬리안 운동도 있었습니다.

오늘날 대학생들 사이에서도 비슷한 열정과 담대함의 초기 징후가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지금 사회 속에서 목격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들을 본받을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은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자라난 청년들로, 주머니 속에 24시간 운영되는 소규모 포르노 상점과 수치심의 공장을 동시에 지니고 있으며, 자신들이 결코 될 수 없는 모습과 부족한 점들을 끊임없이 상기시킵니다. 이들은 고등학교와 초기 대학 시절 COVID를 견뎌낸 이들이며, 정치적 혼란과 기타 여러 요인 속에서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제가 만난 어떤 Z세대 청년도 저처럼 20대 때 가졌던 용기와 명료함 없이 자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세대가 예수님을 얼마나 절실히 필요로 하는지 잘 알고 있으며, 그 필요의 긴급함에 버금가는 열정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도 지혜롭게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만약 조직적 개선만으로 사회적 타락의 물결을 막고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었다면 이미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 곧 영적 각성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좀 더 깊숙이 파고들어 표면 아래 숨은 한때 우리 교회가 뿌리를

“여기서 위대한 사역을 위한 문이 활짝 열려 있다...”

— 고린도전서 16:9

내렸던 거룩한 영성 깊숙한 곳에 아직 싹트고 있는 깨어있는 생명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곳에서 발견되는 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갈증, 심령의 외침, 거룩한 사랑, 신실한 자들 사이의 안전하고 진솔한 교제,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열정적인 관심, 긴급함과 인내가 결합된 모습, 그리고 사회적 변화로 이어지는 흘러 넘침입니다. 우리가 말라기 4장의 아버지들이 젊은이들에게, 그리고 젊은이들이 아버지들에게 돌이켜지도록 마음을 재조정할 때 대학생들의 영혼을 돌보고 그들이 새로운 날을 위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보호할 수 있습니다.

영적각성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길을 막는 장애물을 제거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그 각성을 받을 준비가 된 상태로 자리매김할 수 있으며, 세대를 넘어 함께 손과 마음을 맞잡고 하나님께 새 은혜의 사역을 간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학생들이 앞장서는 영적각성의 길 일 수 있습니다.

## 기도 제목:

- 개인의 영적각성과 겸손을 위해 기도하기. 예수님과의 새로운 만남이 회개로 이어져 우리 삶의 모든 통로를 열게 해 달라고 기도하기 (시편 66:18, 시편 79:8).
- 기독교 운동의 비전을 위해 기도하기. 하나님께서 현재의 경험과 그 비전 사이의 간극을 영적으로 견딜 수 없게 만들어 주시도록, 그리고 우리가 힘겨운 기도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부담을 함께 나누게 해 달라고 기도하기 (골로새서 3:2, 누가복음 22:44).
- 열정적인 하나됨과 담대함을 위해 기도하기. 열정과 하나됨이 특징인 기도의 성령의 넘침, 복음 전도의 열정이 회복되어 특히 성장 중인 청년들 사이에서 대담하게 복음을 전파하게 해 달라고 기도하기 (스가랴 12:10, 사도행전 4:29).



# DAY 16

Glenn은 International Prayer Ministries의 회장이며, National Prayer Committee의 창립 멤버이자 라우잔 세계전도위원회의 기도 수석 부서장(수석 중보 기도 담당)으로 봉사해 왔습니다.

E.M. Bounds의 『기도의 필수성(The Necessity of Prayer)』에서 “기도는 살아 있는 영혼이 하나님과 접촉하는 것이다. 기도 안에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몸을 낮추어 입맞추시며, 축복하시고, 인간이 필요로 하거나 계획할 수 있는 모든 일에 도움을 주신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할 때 무릎 꿇을 때만큼이나 높이 서지 않는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며 기도의 능력과 우선순위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새벽 전에 일어나 기도하시고, 때때로 제자들로부터 물러나 단둘이 계신 아버지와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기도의 중요성을 두신 만큼, 제자들이 “주님,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소서”라고 요청한 것도 당연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서 풀려나와 믿는 자들에게 자신들의 체험을 전할 때, 기도하던 이들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주님,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소서 ...”

— 누가복음 11:9

것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4:31).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그들이 모인 장소가 흔들렸다”는 증거를 보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졌다”는 경험을 하였으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고 증언했습니다.

그 결과, 로마 제국에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인류 역사까지 변화되었습니다.

## 기도 제목:

-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임재 안으로 나아가 간절히 외칩니다. ‘주님, 다시 역사하소서!’”
-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대신 우리가 계획하는 것보다 주님의 계시를 구하며 우리의 위원회에서 세운 계획을 축복하기보다 주님의 신성한 계획을 구하게 하소서.
- 우리의 인간적 기준에 의해 형성되어 온 우리 자신을 용서하시고 회개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과거에 쓰임받았던 세대들 처럼 오늘 우리 세대도 사용하여 주소서!”
- “캠퍼스가 주님의 임재로 불타오르게 하시며, 우리가 겸손히 기도하고 사악한 길에서 돌이킴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와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소서—우리의 캠퍼스, 우리 나라, 그리고 우리 세계를 위하여.”

# DAY 17

## 부흥과 영적 각성의 천제 조건 DR. BOB BAKKE

Bob은 OneCry의 집행 리더십 팀 멤버로, Collegiate Day of Prayer 방송의 프로듀서이자 저자, 강연자로 활동하며 이전에는 세 교회의 담임목사와 Evangelical Free Church of America의 상임 이사로 봉사했습니다.

1830년대 초 필라델피아에서 찰스 피니의 설교 아래 두 명의 벌목꾼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피니는 이들이 벌목꾼으로서 산으로 돌아가리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돌아간 그 지역은 교회나 성도가 거의 없었고 성경도 드물었으며 아마도 읽을 줄 아는 사람도 매우 적었습니다.

2년 후 피니가 델라웨어 강 동쪽을 따라 여행하며 뉴저지 주 캄든에서 집회를 열 때 이 두 벌목꾼은 산에서 내려와 피니에게 그동안 자신들이 배운 기도의 기본 원칙 -성경 읽기와 기도- 를 실천한 결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따라 그 모임이 성장하였다고 전했습니다. 이 작은 기도 모임은 하나님의 임재가 증가하면서 2년 만에 80 평방마일의 지역을 덮으며 5,000명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피니가 그 지역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벌목꾼들은 새 성도들을 제자로 삼고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함께 동행해 줄 제자를 보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이 놀라운 증언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힘이나 권세로가 아니라 내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스가랴 4:6)는 말씀은 에스겔 37장에서 하나님께서 포로가 된 백성을 부흥시키겠다는 약속의 환상을 통해 주신 교훈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른 뼈들이 있는 골짜기 앞에 서서, “내가 너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리니 너희는 살아날 것이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에스겔 37:5). 그러나 죽은 자들이 살아나기 전에 하나님은 또 한 번 에스겔에게

“힘이나 권세로가 아니라  
내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 스가랴 4:6

말씀하시기를 “바람을 향하여 예언하라. 오 인자야 바람아 이 죽은 자들에게 들어와 그들이 살게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에스겔 37:9).

그 결과,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예언하자 생기가 들어갔고 그들은 살아나서 일어나 넓은 군대로 서게 되었습니다 (에스겔 37:10). 삶은 성령님의 작품이며 기도는 하늘의 영광을 위하여 성령님을 부르기 위한 수단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대학 캠퍼스를 위해 기도할 때 -직접 손으로 일하는 자든, 예언자든- 우리의 전략은 항상 동일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권위로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그분께 우리의 기도와 “끊임없이 구하라”는 기도로 바람 즉 생명과 거룩함의 성령님을 구하며 그분만이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을 메마른 곳에 상쾌한 시절을 가져다 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 기도 제목:

- 하나님께 우리의 신뢰를 두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대를 구원하실 수 있음을 인정하기 (요한복음 15:1-5).
-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편 131편, 로마서 8:26).
- 바람같은 성령님의 임하심을 위해 간절히 구하기, 대학생들을 위한 새로운 오순절을 위해 기도하며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을 위한 기도와 잃어버린 자들이 새 생명으로 깨어나도록 기도하기 (에스겔 36:1-14; 사도행전 2:1-4).

# DAY 18

“그러므로 유다에게 이르되, “우리 이 성읍들을 건설하고 그 주위에 성벽과 탑, 성문과 쇠창살을 세우자. 이는 아직 땅이 우리 앞에 있을 때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였으므로, 그를 구하였고 그가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었음이라.”

— 역대하 14:7

Sergey는 러시아어권 최대의 기독교 기도 운동인 “God Seekers Movement”의 창립자이며, 그의 가족과 함께 에스토니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무엇을 꿈꿀까요? 수천 년 전 사람들이 꿈꿨던 것과 똑같습니다. 돈을 벌고 경력을 쌓고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유명해지고 건강한 삶 행복한 가정 단결된 사회 평화로운 삶을 꿈꿉니다. 또 자신들의 이익을 잃지 않도록 “주위에 성벽을 세우자”라는 꿈도 꿈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바로 이런 동기로 대학과 대학교에 진학합니다.

아사 왕은 이 모든 것을 이루었으며 번영의 열쇠를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라. 하나님을 찾으려면 모든 것을 찾을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질수록 상황은 악화되고 하나님께 가까워질수록 모든 것이 좋아집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의 근원이심을 보여줍니다.

모든 사람은 이 진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진리를 이해할 때 한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단지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주된 목표가 곧 우리의 신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아사 왕이 말했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였고, 그가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다”를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위해 하나님을 구할 수도 있고 하나님 자신을 위해 구할 수도 있습니다. 치유를 위해 치유자를 구할 수도 있고 부흥을 위해 부흥자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우리의 신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 구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분 자체로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만약 우리에게 모든 것이 있지만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밖에 없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라.

## 기도 제목:

- 하나님께서 모든 캠퍼스에 임재하시도록 스스로 의지하는 마음 대신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을 찾게 하는 영을 보내 달라고 기도하기.
- 현대판 왕 아사와 같은 정치인 건축가 사업가 예술가 과학자 경제학자 등 하나님을 구하고 그분이 평안을 주어 성공하게 하실 인물들을 일으켜 달라고 기도하기.
- “사방에 평안과 번영”이 주된 가치가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제일 먼저 오도록 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돌아가도록 기도하기.

## DAY 19

저는 헤브리디스 제도에서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다는 책을 읽었고,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팟캐스트를 들었습니다. 저는 다양한 대학 캠퍼스에서 일어나는 대규모 침례의 인스타그램 릴을 보았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애즈베리 대학교에서 몇 주 동안 기도의 영이 부어지고, 회개의 거룩한 눈물을 흘리고, 끊임없이 예배를 드린 사람들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눈으로 부흥을 목격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저는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오늘 저와 함께 기도해 달라고 초대하는 데 큰 부담을 느끼고 있을까요? 부분적으로는 꿈 때문입니다.

4년 전, 저는 매우 생생한 꿈을 꿴습니다. 그 꿈에서 누군가가 저의 나라 지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저에게 지도를 강조하면서 북쪽에서 온 “부흥의 물결”이 나라 전역으로 퍼져 나가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이 “부흥의 물결”이 남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지켜보던 중, 제가 사는 도시 바로 위에서 갑자기 멈췄습니다. 저는 꿈에서 울기 시작했고, 울면서 “하나님, 당신이 하실것입니다! 당신이 부흥을 보내실것을 믿습니다!”라고 반복해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이 꿈을 통해 영적인 현실이 움직이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영이 부어지기 시작했지만, 부어짐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꿈이 저의 나라에서 부흥을 위해 기도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흥을 가져올 수 있고 진심으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게 했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 기도하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그분을 믿으라는 열린 초대가 되었습니다.

이 꿈을 지금 여러분과 공유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며, 너희 젊은 남자들이 환상을 보며, 너희 노인들이 꿈을 꾸리라.”

— 사도행전 2:17

”

영으로 여러분 안에 그분의 영이 부어지기를 기도하거나 이 부어지기를 계속 기도하도록 격려하는 것과 같은 부담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나라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 캠퍼스를 위한 부어짐입니다!

저는 현재 대학의 토양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을 통해 부흥의 “첫 열매” 징조를 보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징조가 우리의 믿음을 키우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영광을 위해 성령님의 더욱 큰 부어짐 직전에 있다고 믿으며 기도하도록 격려하기를 바랍니다!

## 기도 제목:

- 예수님, 우리는 당신이 부흥에 합당하다고 선언합니다!
- 아버지,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고, 당신의 갈망과 목적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 예수님, 우리가 당신의 영광을 위해 온 세상에 부흥을 보내주실 것을 신뢰하며 당신의 얼굴을 찾는 끈기 있는 영을 우리 안에 불붙여주십시오!

# DAY 20

Byron은 OneCry Global Ministries의 창립자/회장입니다.

매튜 헨리(MATTHEW HENRY)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큰 자비를 펼치시기 전에는 먼저 그들을 기도에 부르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저는 이 선언을 약간 수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큰 자비를 펼치시기 전에 먼저 대학생들을 기도에 부르신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120년 동안 일어난 하나님의 위대한 부흥과 각성의 움직임을 함께 생각해 봅시다.

1904-05년에 웨일스 부흥은 20대였던 이반 로버츠에 의해 촉발되었습니다. 이 부흥은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로 확산되었습니다.

1970년 유명한 애즈버리 부흥이 시작되어 전국 수많은 대학 캠퍼스로 퍼져 나갔습니다. 한 학생인 제닌 브라본은 매 예배 전 30분 기도 모임을 시작하였고 이후 종일 기도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기도 모임 중에 그녀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며 주님이 자기 캠퍼스로 오고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제닌은 순종하여 기도했고 그 후 놀라운 역사가 이어졌습니다.

1995년 제 전화가 울렸습니다. 전화 건너편의 목소리는 제가 즉시 휘튼 대학에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만원석이 가득 찬 강당 발코니에 앉아 있었고 문득 내가 캠퍼스 전역에 충격을 주는 부흥의 한가운데에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놀랍게도 그 기도 모임에는 “다시 일으키소서!”라는 외침이 있었는데 이는 그 캠퍼스에서 이전에 일어났던 부흥 운동들을 기억하며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주님을 찾을 때니, 그분이 오셔서 너희에게 의를 부어 주실 것이다.”

— 호세아 10:12

물론 우리 모두는 최근 애즈버리 대학에서 학생들로 시작된 하나님의 놀라운 움직임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불이 내렸고 나는 그 불을 목격하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것을 보았고 그 연기가 아직도 우리 옷에 남아 있으며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바라는 갈망은 그분이 오실 때까지 우리를 계속 찾게 할 것입니다.

만약 다가오는 대학 기도일에 하나님께서 대학생들의 간구하는 마음을 들으시고 그날 모든 대학 캠퍼스에 내려오신다면 어떨까요? 또는 단 한 캠퍼스에 내려오시더라도 그것이 주마다 몇 달 몇 년 동안 다른 캠퍼스로 확산된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기도 모임으로 역사적인 움직임의 일부가 된다면 어떨까요?

“주님, 당신은 위대한 부흥자이십니다. 지금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다시 일으키소서. 그리고 주님, 제 안에서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십시오.”

## 기도 제목:

- “주님, 제 영혼의 부흥자로서 당신을 찾게 하소서 -다른 어떤 대체물도 없이” (시편 85:6).
- “주님, 제 마음에 긴급함을 두고 지금 당신을 찾게 하소서” (호세아 10:12).
- “주님, 제 마음이 당신의 명백한 임재와 함께 올 때까지 계속해서 당신을 찾게 하소서” (역대하 7:14).



# DAY 21

## 일어나라, 부흥의 선구자들이여!

SARAH BREUEL

Sarah는 Revive Europe의 창립자이자 전무  
이사로, 이탈리아 로마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던 두 사람의 이야기를 접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백성을 인도해 내신 후 광야에서 방황하던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중요한 순간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12명의 지도자를 따로 뽑아 약속의 땅을 정찰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정찰 후 열 명의 정탐꾼은 그 땅에 있는 거인들이 너무 많다고 보고하였으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그 거인보다 크시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유럽의 대학 캠퍼스에서 기독교가 살아나기 위한 시기의 결정적 순간에 우리도 비슷한 경험을 하기를 제안합니다. 많은 이들이 유럽에서 거대한 세속화의 거인을 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에서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인물을 일으켜 내시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골리앗의 강력함에 집중하지만 하나님은 전략적인 돌을 던질 담대한 다윗들을 찾고 계십니다.

일부는 유럽 기독교가 죽었다고 하지만 우리는 부활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분은 회복시키실 능력이 있으시며 유럽은 부흥 이전(PRE-REVIVAL) 단계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다른  
영을 가지고 있으며  
전심으로 나를  
따르나이다.”

— 민수기 14:13

갈렙은 성경에서 다섯 차례 등장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로 묘사됩니다 (민수기 14:24; 신명기 1:36; 여호수아 14:8, 9, 14). 여러분, 하나님은 영웅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을 전심으로 따르고 예수님을 위해 온전히 헌신하는 자들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자신의 대학 캠퍼스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갈렙이나 여호수아가 있습니까? 갈렙이여 일어나라! 여호수아여 일어나라! 그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모든 자들이여 일어나라 부흥의 선구자들이여!

## 기도 제목:

- 대학 캠퍼스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를 갈렙과 여호수아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하기.
- 개인적, 그리고 공동체적 회개의 물결이 전 세계 대학 캠퍼스를 휩쓸도록 기도하기.
- 유럽 및 전 세계 대학생들 사이에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도록 기도하기.



# DAY 22

George는 수상 경력에 빛나는 “Transformations” 비디오 시리즈와 “The Moving Cloud” 스트리밍 채널의 프로듀서로, 매주 이야기, 인터뷰, 가르침을 통해 ‘임재가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 후반, 콜롬비아 Cali 도시에 도착했을 때, 내가 경험할 일을 아무도 준비시켜 주지 못했을 것입니다. 악명 높은 마약의 요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돌파의 소식을 들었고, 그것이 내가 그곳에 가게 된 주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직접 본 현실은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기대를 순식간에 압도하였습니다.

내가 Cali에서 머무는 동안 다섯 가지 기억이 단순히 그 경험 자체뿐 아니라 부흥에 대한 나의 이해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가졌던 전제, 즉 영적 각성은 교회 모임에 국한된 드문 종교적 사건이라고 생각했던 가정은 곧 훨씬 혁명적인 것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첫 번째 기억은 공항에서 들어오는 길의 한 동네 카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현지 진행자가 우리 영상팀에게 Cali 도시에 임한 하나님의 역사를 간략하게 설명하는 동안, 나는 카페 곳곳에서 비슷한 대화가 오가는 것을 우연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호스트에게 이 상황에 대해 물으니, 그가 미소 지으며 “Cali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틀 후, 나는 도시의 대표 뉴스 앵커와 인터뷰를 하던 중, 마약왕들의 몰락 등 도시에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 전해 들었습니다. 그 대화는 전율을 불러일으킬 정도였으며, 시간이 전혀 감도 없었습니다. 마침내 시계를 확인하자 아드레날린이 솟구쳤습니다. 저녁 뉴스 방송이 5분 후에 생중계될 예정이었는데, 현장에는 촬영 스태프가 한 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 가벼운 기침 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리니, 전체

“그 날 이후로 그  
도성의 이름은  
‘여호와가 거하시는  
곳’이라 하리라.”

— 에스겔 48:35

제작진이 뻘뻘하게 모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방문에 매료되어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창고 같은 교회 계단에 서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매달 1,000명의 새로운 신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습니다—40개월 동안 계속된 성장. 이 놀라운 성장을 본 나는 한 장로에게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 장로는 거대한 교회 내부의 한 구역을 가리키며 말하길, “저곳은 우리 기도 센터입니다. 사람들이 24시간, 주 7일 내내 주님 앞에서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내가 만족하지 못하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것은 놀랍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프로그램은 어떠합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자, 한 노인이 한탄 섞인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프로그램을 위한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물을 배로 가져오는 데 너무 바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도시에 임하시고

계십니다. 매일 우리의 교인들에게 최소한 6명의 사람들이 다가와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묻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가 아니라, 도시 곳곳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의 임재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카페, 공원, 버스, 뉴스 스튜디오, 사무실, 학교, 가정, 교회—어디를 가든지 그 현장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이후 “현저한 나타남[의역](thick-ness)”이라고 부르게 된 이 분위기는 진정한 하나님의 방문의 특징입니다. 이는 프로그램에 관한 것이 아니라, 지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오직 체험되는 것입니다. 즉,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한 공동체에 이러한 분위기가 임하게 되었느냐?”는 질문을 멈추지 않고 고민했습니다. 주님의 길을 어떻게 준비하는 것일까요?

나는 Cali 외곽에 있는 Ruth Ruibal의 집 언덕에서 절대 잊지 못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많은 것을 본 그녀의 눈을 통해, 그녀는 네 가지 주된 촉매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도, 금식, 회개, 그리고 하나님. 이 네 가지는 Cali의 돌파구 이전 시절에는 의미 있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자만, 용서 없음, 비방으로 지배되었던 당시 도시의 목회 연합은, 한 전 지도자의 말에 따르면 “아무도 원치 않는 파일 상자”와 같았습니다. 그때 거의 포기를 결심했던 Ruth의 남편 Julio는 오히려 40일간의 금식을 결심하며, 그 기간 동안 동료 목회자들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기를 위해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방식으로 그와 만나, 그에게 상처받을 자격이 없음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며칠 후, Julio는 오후 모임으로 가던 중 후원된 암살자에게 총격을 받아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비극은 도시 전역, 특히 목회 연합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들에 대해 책임지신 것은 아니지만,

그분은 신속하게 그것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Julio의 추모식에서, 수백 명의 소원해졌던 목회자들이 하나됨의 서약을 하였고, 더 이상 그들 사이에 어떠한 것도 갈라놓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도시 전역에서 통합된 기도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움직임에 활기를 불어넣었고, 이는 수십 년 동안 회자될 운동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것은 장관이었지만, 많은 이들이 그것을 재현하기란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해되기 쉽지만, 하나됨은 그 자체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겸손의 부산물로 나타납니다.

내가 Cali에서 영원히 새겨줄 마지막 기억은, Pascual Guerrero 경기장의 강철 문을 흔들며 “들어보내라! 들어보내라!”고 외치는 3,000명의 인파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열정적인 사람들이 정치 집회나 주말 축구 경기를 보기 위해 몰려들었다고 생각하겠지만, 이는 오해입니다. 당시 시각은 새벽 4 시였으며, 이 군중을 움직인 유일한 동기는 전일 밤내내 기도하며 회개한 신자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열망이었습니다.

거의 한 번도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갈구하는 열망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기도의 공동체였으며, 고통스러운 간구마다 Cali의 어두운 유산이 희망과 치유의 모델로 탈바꿈되고 있었습니다.

Julio Ruibal은 “내가 하나님의 목적을 다할 때까지 나는 불멸이다”라고 자주 선포하였습니다. 이것은 거짓된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Julio는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살았으며, 예수님처럼 내려놓는 담대함에서 오는 확신을 품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혼자 있느니라; 그러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 요한복음 12:24

## 기도 제목:

- 여러분의 상상 속 부흥의 변화를 실제 기억으로 대체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을 하나님께 요청하기.
- 하나님의 주목, 은혜, 임재를 끌어들이는 것으로 입증된 것들에 대한 여러분의 갈망이 증대되도록 기도하기.
- 여러분의 삶과 캠퍼스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담대함을 하나님께 구하기.

# DAY 23

## 모든 피조물, 모든 세대를 위하여 AMAZING GRACE CRUZ

Amazing은 인도 Kingdom Kids 사역을  
통해 고아들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하나님은 젊은 이부터 노인까지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찾는 자는 반드시 그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로 변화된 세대가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인도의 남부 지역에서 5세부터 15세 사이의 소수의 아이들이 종교적 매춘에서 구출되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그들 신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남성과 성적 관계를 가져야 했습니다. 그들의 지역 사회에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무료 음식을 주고 교육을 하라, 그러나 복음은 절대 전하지 말라”라는 말을 자주 하곤 했습니다.

구출 프로그램이 시작된 지 1년 후, 아버지가 없는 45명의 아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이 아이들은 무릎을 꿇고 한 시간 동안 기도하며 손을 들어 기도했습니다. 이들의 기도를 들으면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을 반복하는 소리가 들리곤 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화려한 신학적 언어는 없었지만, 그들의 기도는 단순하고 진솔하면서도 강력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마을을 돌아다니며 “예수님, 그들을 축복하소서. 아멘”이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가족들과 사원 제사장들이 초자연적인 만남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아이들은 생일과 장례식, 자전거(바이크) 구매와 같은 경우에 그들의 신들에게 기도하는 대신, 이 아이들에게 와서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4년 동안 8개 마을에서 매춘율은 5% 미만으로 떨어졌고, 사원 제사장들은 그리스도께 돌아와 그들의 신산을 “기도의 집” 산으로 개명하였습니다.

기도는 모든 세대, 캠퍼스, 도시, 가정, 심지어 친구들까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민족이

“말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며, 너희 젊은  
남자들은 환상을 보며,  
너희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내 종들, 남녀  
할 것 없이 그 날에 내  
영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 사도행전 2:17-18

변화되는 열쇠는 이 아이들처럼 순수한 믿음과 무릎 꿇고 변화됨을 구하는 신앙에 있습니다.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온 “Children House of Prayers (기도의 집)”을 만날 때마다, 나는 다음 두 가지가 일치함을 항상 깨닫습니다.

1. 거창한 기도가 아니라 꾸준한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기도 모임의 아이들은 매일, 매주 모여 주님의 움직임을 구합니다.
2. 그들의 마음의 단순함에 관한 것입니다. “주님, 제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준비하셨는지 알려주소서”라고 묻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 기도 제목:

- 하나님께 순수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도록 기도하며, 굳건한 영혼을 새롭게 하소서.
-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 뜻에 일치하도록 기도하기.
- 모든 세대, 특히 자녀들에게 성령의 넘침이 임하여, 그들 가운데서 예언이 흘러나오도록 기도하기.

# DAY 24

Colin과 Melissa Piper는 Nxt Move 글로벌 커뮤니티의 일원으로, 기도하며 부흥의 방향이 이 떠오르는 세대에서 변화되도록 사역하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북서쪽 끝자락에 있는 이곳에서 우리는 응접실 창문 너머로 ‘더 민치(The Minch)’라는 물줄기를 바라봅니다. 대서양의 날씨가 거칠어지면, 뒤에 있는 섬들이 폭풍으로부터 피난처가 되어 배들이 그 틈을 안전하게 통과합니다. 옛부터 그랬습니다. 켈트 선교사들이 이곳으로 향해하여 유럽 전역에 복음을 전했고, 청교도들에게는 신세계로 가는 서사시적 여정의 첫 관문이었습니다. 긴 여름 날들에, 해가 마침내 이 섬들(오늘날 ‘아우터 헤브리디스(Outer Hebrides)’로 알려진 곳) 위로 지면, 우리는 그 섬들이 마치 불타는 듯이 선홍빛으로 물들어 가는 것을 볼 것입니다—75년 전 주님의 불이 능력 있게 임했던 때와 같ियो.

1949년부터 1952년 사이, 부흥이 헤브리디스 섬 전역을 휩쓸며 수천 명의 생명을 변화시켰습니다. 회개하는 영혼들이 그리스도께 나아갔고, 기존의 교회가 깨어나며,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는 가운데 공동체들이 무릎 꿇었습니다. 헤브리디스의 부흥은 스코틀랜드 역사상 가장 유명한 부흥 중 하나로 평가받으며,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이 섬들을 사로잡아 영원한 진리로 마음을 불태웠는지에 대한 셀 수 없는 간증들이 이어집니다. 이 기적 같은 이야기를 읽다 보면, 어떻게 이처럼 외딴 영국 연안의 한 구석에서 시작되었는지 궁금해질 것입니다. 그 시작은 바로,

“내가 목마른 자에게  
물을 부어 주며,  
메마른 땅에는 홍수를  
주리라.”

— 이사야 44:3

경외심 넘치며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던 두명의 연로한 자매 -한 명은 눈이 멀었고 다른 한 명은 거동이 불편하던 Peggy와 Christine Smith에게서 비롯되었습니다.

교회와 공동체의 상태에 큰 부담을 느낀 Peggy와 Christine은 부흥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약속 “내가 목마른 자에게 물을 부어 주며 메마른 땅에 홍수를 주리라”를 굳게 붙들었습니다. 그들은 밤낮으로 이 약속을 간구했고, 결국 Peggy는 부흥이 임박하리라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자매는 목사님을 불러 계획을 실행에 옮겼고, 1949년 12월 13일,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하시며 섬 전역에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 기도 제목:

- 오늘 우리 사랑하는 이들, 대학, 교회, 공동체, 그리고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건히 서도록 기도하기.
- 하나님께서 세상의 필요를 보여 주시고, 그 필요에 맞춰 간구할 때까지 특정 성경구절을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하기.
-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실 모든 사역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방법을 알려 주시도록 기도하기.

# DAY 25

## 기도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JURIE KRIEL

Jurie는 텍사스 오스틴에서 *Nxt Move* 글로벌 커뮤니티를 이끌며, *Shoreline Church*의 집행 리더십 팀원이며, *Lausanne Movement*와의 글로벌 협력 담당 이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지만, 그것의 본질을 진정으로 이해할 때에만 그러합니다.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능력 자체를 믿는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 없이 기도합니다. 기도의 변화시키는 능력을 믿게 될 때, 우리의 기도 태도는 달라지고 그 변화는 우리 삶에 심오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기도는 소원을 들어주는 마법 지팡이나 하나님을 조종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진정한 기도는 우리의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그분의 완벽한 계획에 맞추어 주시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요청한 것을 즉각적으로 해결해 주는 자판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창조주와 나누는 거룩한 대화이며,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고 그분의 고요한, 작은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조용한 공간입니다. 기도는 겸손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인도와 용서, 도움을 간절히 청하는 자세입니다.

기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며, 그분의 한없는 사랑과 평안을 경험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기도는 변화를 위한 촉매제로서, 믿음, 신뢰, 그리고 변함없는 기대가 함께할

“의인의 간절하고 열렬한 기도는 큰 힘을 발휘하나니.”

— 야고보서 5:16

때 우리 상황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없다면 기도는 텅 빈 의식에 불과해집니다. 진실되고 열정적인 기도가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면 산을 옮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우리 내부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를 맞추어, 우리의 관점과 태도, 심지어 정체성까지 재형성합니다. 우리의 시야를 넓혀 하나님을 그분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며, 우리 자신이 변화됨에 따라 주변 세상도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우리 삶을 재구성하는 변혁적인 힘입니다. 우리 모두 확신에 찬 기도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음을 믿읍시다.

## 기도 제목:

- 영적 각성이 일어나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 중에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할 필요성을 깨닫게 기도하기.
- 믿음이 증대되어 세상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하기.
- 개인의 변화가 세상에 변화를 가져다 주는 촉매제가 되도록 기도하기.



# DAY 26

David는 *Awaken the Dawn*의 창립자입니다.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지속 가능한 변화를 위해 그들의 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반문화적 세대를 세우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변화를 위한 주된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것은 많은 이들에게 놀라움을 줍니다. 예수님에 따르면,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가 곧 신속한 정의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정의란 잘못된 것이 바로잡히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깊이 신경 쓰시는 불의한 문제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중 가장 목소리를 내는 이들보다도 더 말이죠. 그러나 아마도 가장 큰 불의는 이 세대의 수백만 명이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알지 못하고, 진리만을 찾아 헤매며 어둠 속에 갇혀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지 상황의 암울함만 보지 않습니다. 모든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전 세계 대학들에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 상상할 수 있습니까? 캠퍼스와 나라를 휩쓸며 영적 각성이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기도로 목소리를 낼 준비가 되었습니까?

상황은 현재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아야 합니다. 기쁜 소식은, 그렇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의 탄식이 있습니다. 그 탄식을 소리 내어 표현하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꿈이 하늘처럼 땅에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택하신 자들이 날마다  
주께 부르짖으며, 낮과  
밤으로 그에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신속히  
정의를 베푸실 것이다.”

— 누가복음 18:7-8

옛 이스라엘에 살던 한 여자, 한나를 기억합니다. 그녀는 불임으로 고통받았고, 간절히 아들을 원했습니다. 자신의 불임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자기 연민이나 분노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께 정의를 간구하기 위하여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느 날 성전에서, 대제사장 엘리는 그녀가 너무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탓에 만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하나님은 단지 한나에게 아들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녀에게 그 세대 최고의 예언자,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마지막으로 이와 같이 열정적인 기도로 외쳤습니까? 당신은 간절히 외쳤습니까?

한나처럼, 젊은이와 노인 모두 “이 세대의 자녀들이 필요합니다!”라는 기도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 기도 제목:

- “아버지, 제 나라의 대학 캠퍼스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세대가 주님을 있는 그대로 보고, 주님의 정의가 임하도록, 그리고 성령의 큰 움직임이 이 세대를 뒤흔들도록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DAY 27

## 전면 매진, 걸어 다니는 부흥

WAYNE ATCHENSON

Wayne은 Billy Graham 도서관 및 기록보관소의 수석 대사 겸 역사가이며, "Asbury Revival: When God Used Students to Wake a Nation"의 저자입니다.

1970년 Asbury 부흥의 영향은 지금으로부터 55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그 부흥의 기도 지도자였던 Jeannine Brabon의 사역과 삶을 통해 계속되고 있습니다. 1967년 Asbury College(켄터키 윌모어) 신입생이던 시절 하나님께서 Jeannine에게 캠퍼스에 부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자 그녀는 1,100명의 학생 교직원의 이름을 모아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Jeannine은 "John Wesley Great Experience"의 기도 훈련에 참여한 36명의 학생들을 발견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기도하고 믿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 그리고 실제로 1970년 2월 3일 Hughes Auditorium의 한 예배당에서 눈부신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밖에는 눈이 내렸지만 그들은 부흥을 위해 기도하며 오직 예수님이 임하시길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영광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7일 밤낮 동안 하나님은 그 캠퍼스를 장악하셨고 부흥은 미국 전역의 130개 대학 신학교 교회로 퍼져 나갔습니다. 이는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학 부흥 중 하나로 기록됩니다.

Asbury 대학에서 부흥이 시작된 후 선교사 부모의 딸인 Jeannine은 1971년 졸업 후 바로 남미 선교 현장으로 나갔고 이후 16년간 스페인에서 1989년 이후로는 콜롬비아에서 사역했습니다. Jeannine은 자기 자신을 비우고 온전히 하나님께 복종하였으며 어쩌면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영혼 구원자 중 한 명일 것입니다.

2019년 이후 그녀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께 인도한 6,000명의 사람들의 명단을 꾸준히 유지해왔습니다. 그녀는 메데인 감옥과 거리에서 사역하며 사람들에게 "너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묻고 그 이름의 성경적 의미(예: "네

**“내가 너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를 확신하노니,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것을 완성하실 것이다.”**

**— 빌립보서 1:6**

이름은 기쁨을 의미하니, 매일 그리고 영원토록 네 마음에 기쁨이 있기를 원하느냐?)를 나눕니다. Jeannine은 "성령님께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십니다. 당신은 단지 입만 열면 됩니다. 성령님께서 기적적인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2023년 Asbury 부흥 도중 Jeannine은 남미에 온 다음 즉시 제단으로 나아가 전 세계의 학생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녀는 2024년 9월 19일 빌리 그레이엄 도서관에서 제75번째 생일을 맞으며 저와 함께 Asbury Revival: When God Used Students to Wake a Nation에서 제가 쓴 그녀의 이야기를 읽은 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Jeannine은 살아있는 "부흥 거인"입니다. 그녀는 "나를 만나면, 곧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Jeannine과 같은 걸어다니는 부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녀는 은퇴할 계획이 없습니다.

## 기도 제목:

- 아버지, 이 젊은 세대에게 당신의 마음, 능력, 그리고 사랑이 모두에게 보이도록 나타내 주소서!
- 예수님, 대학 캠퍼스를 위해 또 다른 위대한 부흥이 일어나도록 보내 주소서, 오직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 성령님, “걸어다니는 부흥”의 세대를 일으켜, 구원받을 영혼들을 불태울 수 있는 열정으로 충만케 하소서.

# DAY 28

Adi는 Cru Romania의 FamilyLife 사역에 종사하며, Re:generation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의 사명은 가정을 강화하고 영적 갱신을 불러일으켜, 믿음 중심의 삶과 공동체를 세우도록 돕는 것입니다.

1990년대 루마니아에는 뜻밖의 영적 개방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깊은 갈증을 느꼈습니다. 수십 년간의 공산주의 검열이 끝나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성경과 종교 문헌에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들은 신선하고 강력한 말씀의 장이 되었으며 선교사들과 기독교 사역자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루마니아는 복음을 위한 비옥한 땅이었고 우리는 영적 부흥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저의 인생은 이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크게 변화하였습니다. 학생 시절 저는 두 명의 CRU 선교사와의 대화 후 첫 성경을 구입하였습니다. 그 후 1년 동안 수많은 질문 속에서 점차 하나님이 진실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주장하신 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기숙사 방에서 예수님을 제 마음에 영접하였고 저와 같이 수많은 학생들이 매일 복음이 전파되고 성경과 믿음에 관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다른 이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며 많은 학생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오늘날 선교사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한 깊은 관심을 품고 기도했습니다. 개인의 성화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 세대에 주님의 대사명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했습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한다.”**

— 히브리서 11:6

어느 날 금식과 기도의 시간 중 저는 뜻밖의 상황으로 한 도시를 걸어 다녀야 했습니다. 그 여정 동안 그 도시에 복음을 위한 열린 문이 있기를 기도하라는 강한 부담을 느꼈습니다. 얼마 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영화 '예수'를 관람한 후 큰 회심을 경험했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말씀이 변함없이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사시도록 살아야 합니다. 그분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고 구원하시는 데 전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우리 세대에 주님의 사역을 이루실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길 기도합니다.

## 기도 제목:

- 영적 부흥을 위해 기도하기: “주님,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을 더욱 친밀하게 알고자 하는 갈망이 일어나게 하시며, 주님의 빛이 우리 안에 타오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마태복음 5:14).
- 믿음의 용기를 위하여 기도하기: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시편 28:7)라는 말씀처럼, 어려움 앞에서도 굳건히 서도록 기도합니다.
- 우리의 간증의 기회가 주어지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지혜롭게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골로새서 4:3).

# 결코 포기하지 말라

STEVE SHADRACH

Steve는 Center for Mission Mobilization(현 Via)의 창립자이며, 미국 세계선교센터의 Mobilization Director로 봉사해왔습니다. 그는 가족과 함께 아칸소 주 Fayetteville에서 거주합니다.

## DAY 29

MIKE는 많은 대학 형제들과 함께 어울리며 즐겁게 놀던 파티 애호가였습니다. 우리는 여러 별이 빛나는 밤에 우리 형제회 집의 옥상에서 삶과 꿈 그리고 그의 영혼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언젠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다면 내가 가장 먼저 알게 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그 누구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밤늦게까지 이른 아침까지 무릎 꿇고 울며 기도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제 기도를 주도했습니다.

어느 오후 복도에서 “MIKE가 사고로 죽었다!”라는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급히 무릎을 꿇고 흐느끼며 믿을 수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분명 약속하셨는데! 믿기 어려워 저는 말하는 것도 식사도 잠도 멀리했습니다. 저는 혼란 속에서 삼일 밤 동안 캠퍼스를 떠돌며 하나님께 MIKE의 영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울었습니다.

그때 어느 형제가 제 문을 두드렸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인 채로 그가 MIKE에게 일어난 일을 전해 주었습니다. MIKE와 몇몇 형제들은 호수에 가서 마리화나를 피우던 중 한 목사가 그들에게 영적인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MIKE는 그 대화에 크게 마음이 움직여 즉시 일어나 약물을 호수에 던지고 “가자, 꼭 SHAD에게 알려야 해”라고 외쳤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주도하나니...”

— 고린도후서 5:14a

그가 차를 몰고 돌아가는 중 MIKE의 차가 한 곡선을 돌며 달려왔고 그 순간 MIKE는 즉각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차를 정면으로 들이받아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는 대신, 자신의 차량을 급히 도로 끝의 절벽으로 돌려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MIKE의 차는 그를 완전히 눌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친구가 하늘에 있는 모습을 즉시 상상했습니다. 그는 구원 받았습니! MIKE는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하신 약속을 지키신 것입니다. 다시는 누구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의 혹은 다른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 계속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고 제 삶을 내어놓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5:14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주도하므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 기도 제목:

- 여러분의 기도 방에서 가까운 대학들을 위해 끈질기게 기도하며 특정 학생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도록 중보 기도하기 (마태복음 6:6; 마가복음 1:35).
- 주님께서 수확할 일을 위해 일할 자들을 일으켜 주시도록 기도하기 (누가복음 10:2).
- 전 세계 대학생들이 큰 수확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기도하기 (요한복음 4:35).

# DAY 30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는 자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다. 너희는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고, 오히려 아들됨의 영을 받았으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 영이 우리와 함께 증언하노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고, 자녀라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당함으로써 또한 그와 함께 영화롭게 되리라.”

— 로마서 8:14-17

Zach는 Lower의 저자이자 격려자이며 Asbury 대학의 목회자(In-Residence)로 섬기고 있습니다.

만약 모든 대학 캠퍼스에서 학생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며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 입양되었음을 온전히 확신한다면 어떨까요? 그들은 모든 축복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캠퍼스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저는 세 딸을 둔 축복 받은 사람으로서 아이들이 아버지에게 의지하며 “그들이 무엇이든 요구하면, 특별한 이유 없이 순수하게 부탁한다”는 아름다운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저의 딸 Eden은 이를 연속해서 Shake Shack에서 저녁을 먹자고 욕심 폭탄이나 새 신발 등을 요구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더 잘 알 것이다”라는 생각 없이 순수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사랑받음과 입양됨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우리 아버지께

다른 방식으로 요청할 수 있지 않을까요?

누가복음 18장에서 제자들은 “더 잘 안다”라 생각하며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 일로 인해 실제로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한다는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기도할 때도 특히 어려워 보이는 일에 대해 기도할 때 우리는 아이 같은 경외와 믿음을 잃기 쉽습니다. 우리는 어른답고 “다 알 것”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만약 대학생들이 자신들이 사랑받는 자녀임을 온전히 확신한다면 어떨까요? 대학 캠퍼스에 성령님의 양자의 영이 임한다면 우리는 다르게 행동하고 다르게 기도하며 다르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더욱 다르게 만날 것입니다.

깨어있는 캠퍼스란 자신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임을 온전히 확신하는 대학이나 대학교입니다.

## 기도 제목:

- 자신의 사랑받음에 대한 성경적 진리를 깨닫도록 기도하기. 하나님께서 이 진리가 여러분의 기도와 캠퍼스 친구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길 원하시는지 물어보기.
- 여러분의 캠퍼스에서 “어른다운” 사고로 인해 학생들이 아이 같은 순수함을 잃지 않도록 기도로 그들을 보호하라고 분투하며 기도하기.
- 하나님께서 성령님과 확신의 사랑을 부어 주시어 학생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그 자유 속에서 살도록 기도하기.



# DAY 31

## 부흥의 두 얼굴

DAVID SMITHERS

David는 Riverside Prayer Ranch의 호스트 진행자이자 캘리포니아 Pomona에 있는 Christian Assembly에서 목사/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잠든 교회를 깨우고 잃어버린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실 때, 특히 젊은 세대를 사용하시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수세기 동안 하나님은 겸손하고 경험이 부족한 자들을 들어올려 위대한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역사 속의 대부분의 위대한 부흥가들과 선교사들은 20대의 젊은 남녀였습니다. 새로운 도전과 변화는 종종 새로운 세대의 부흥 선구자들의 힘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부흥은 결코 한 그룹 또는 한 세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역사를 상세히 연구하면 항상 요엘서 2장의 약속이 모든 위대한 부흥 가운데서 이루어짐을 보여줍니다: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며, 너희 노인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 남자들은 환상을 보리라. 내 종들, 남녀 모두에게 내 영을 부어 주리라” (요엘 2:28-29).

네, 부흥에는 두 가지 얼굴이 있습니다 - 두 세대가 함께 기도하며 새 임재를 위한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루스와 나오미의 언약적 우정이나 엘리자베스와 동정녀 마리아의 결연한 믿음과 같이 하나님은 여러 세대의 연합을 통해 부흥을 탄생시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예는 출애굽기 17:8-15에 나타난 다세대 간의 연합입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협하자 모세는 젊은 지도자 여호수아를 불러 하나님 백성을 모아 적들을 물리치게 했습니다. 이는 성경에서 여호수아가 처음 언급되는 순간으로 이후 그는 수많은 믿음의 전투를 이끌고 모세의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자식들에게로, 자식들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돌이켜지게 하리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저주로 땅을  
내리리라.”**

— 말라기 4:6

우리 대부분은 모세와 함께 산꼭대기에 올라가 아래 골짜기에서 싸우는 여호수아 군대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압니다. 모세의 기도하는 손이 약해지자 아말렉 군대는 강해졌으나 아론과 훌의 도움으로 모세는 기도를 지속하여 여호수아와 그의 젊은 군대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합되고 집중된 기도가 이루어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는 그들의 아버지 어머니 조부모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의 열렬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한 세대의 승리는 다른 세대의 믿음과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대를 거쳐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서로의 기도가 있어야 마지막까지 잘 마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여전히 참된 부흥으로 가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 기도 제목:

- 하나님께 여러분이 다른 이들의 은사와 통찰이 필요함을 깨닫게 도와 달라고 기도하기.
- 참된 가족처럼 계획하고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인도받기를 기도하기.
- 아버지와 어머니의 도움과 기도를 구하기.

### **ACTION STEPS TOWARD GENERATIONAL UNITY**

by Vicky Porterfield

Vicky는 텍사스 오스틴의 도시 기도 지도자이자, 대학생들을 위한 수십 년 간의 중보기도 사역자로서 영적 어머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방문을 간구하며 기도할 때, 우리 모두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어른들과 젊은 이들이 손을 맞잡고, 남자와 여자가 함께하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그룹을 넘어 우리와 다른 사람들과 연합해야 합니다. 부모님과 그분들이 여러분을 위해 드린 기도를 붙잡으세요. 성전의 만나처럼 수십 년간 기도해 온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믿으세요. 주님의 오심을 위해 하나 되십시오!

- 주님께 다른 세대의 사람을 영적 부모나 아들/딸로 삼도록 요청하세요. 그런 다음 그 사람에게 다가가 만나서 함께 기도할 시간을 요청해 보세요.
- 부모님이나 자녀에게 전화를 걸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을 행하기를 원하신다고 함께 믿음을 나누세요. 친구들 가운데 부흥과 영적 각성을 위해 기도하며 믿음을 결합하세요. (참고: 대부분의 부모님과 조부모님은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는 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배울 것을 기대하세요.)
- 예수님을 사랑하는 젊은 세대와 나이 든 세대를 지속적으로 축복하세요.

# DAY 32

Henry는 가나 Great Commission Movement에서 전국 학생 주도 운동의 리더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평생 동안 하나님의 약속에 전심으로 충성했던 갈렙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민수기 13장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열두 지파의 지도자들을 보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찰하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명령을 받았지만 열 명의 지도자가 보낸 보고서는 두려움과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이로 인해 온 백성이 흐느끼며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젊은 지도자 갈렙은 놀라운 확신과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 때 갈렙은 담대하게 “지금 당장 그 땅을 차지하러 가자. 우리가 반드시 정복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민수기 13:30). 갈렙의 확신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주변의 반대와 두려움 속에서도 갈렙은 굳건히 서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기로 선택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85세의 나이가 된 갈렙은 여호수아 앞에 서서 여전히 하나님께 전심으로 충성하고 있음을 다시 선언하였습니다 (여호수아 14:10-11). 이는 단지 육체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의 영적 인내와 믿음을 나타내는 증거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전 세계 CRU의 글로벌 부회장인 Prof. Dela는 고(故) Steve Douglass에게 경의를 표하며

“내 형제들아, 애굽에서  
우리와 함께 갔던 이들이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게  
하였으나, 나는 온 마음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따랐느니라.”

— 여호수아 14:8

“60대에 이르러 나는 사역을 접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Steve는 오히려 ‘우리 부츠를 신은 채로 죽자’고 격려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렙의 삶은 젊은 대학생들과 노인 모두가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도록 도전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령님에 의해 변화된 학생 운동을 세우고, 평생 복음의 제자로 파송될 학생들을 위해 사역하려고 합니다. 갈렙의 전심 어린 충성을 본받아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두려움 없이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젊은이든 어른이든 우리는 그의 말처럼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고 굳게 선언합니다.

## 기도 제목:

- 특히 대학생 등 젊은 세대가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믿음 위에 굳게 서도록 기도하기.
- 복음을 담대히 전하며 심지어 영적으로 저항하는 캠퍼스에서도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
- 학생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믿음이 자라나 그들의 캠퍼스에서 빛으로서 각 영역과 모든 나라에 영향을 미치도록 기도하기.

# DAY 33

## 서로 사랑하라

### DAVID & AUDRY KIM

David와 Audry Kim은 Contend Global을 이끄는, SAFA 학교의 디렉터로도 섬기고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진정한 부흥의 한 가지 위대한 증거가 바로 마음의 열정이 하나님을 향해 따뜻하게 불타오르는 것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부흥의 주된 목적이며 동시에 모든 성경의 주된 명령입니다. 누가복음 10:27은 “네 마음과 목숨과 힘과 소망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두 번째로 큰 계명은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마태복음 22:39)고 선언하셨고, 최후의 만찬 때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정의하셨습니다.

말로는 이 형제애의 사랑을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가장 위대한 교회 간 연합 캠퍼스 내의 모임들과 네트워크들도 이 사랑에 비하면 아직 유아적입니다. 이 사랑은 단지 하나됨을 목표로 하지 않고, 오직 사랑 그 자체를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오직 이러한 사랑만이 진정한 하나됨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과 그분의 주권 성경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그 결과 형제자매를 향한 참 아가페(AGAPE) 사랑을 낳습니다. 이런 사랑은 자신이나 개인의 이익 또는 의제를 바라지 않습니다. “자기 것을 구하지 않는다”는 성경의 가르침 그대로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가올 시대 교회의 토대가 될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은 구유에서 태어납니다. 이 사랑은 다른 자녀들을 영광 가운데 이끌어 올리기 위해 영원한 왕관을 감추고 있었으며, 하나님 자체였으나, 모든 인류를 위해 한 인격체로 오셨습니다. 이 사랑은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

**— 요한복음 13:34-35**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까지 하였으며 -심지어 배신할 자에게조차도- 섬기기 위해 오셨고, 많은 사람을 위한 값을 치르도록 자신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값싼, 인본주의적 관용과 이기적인 친절과는 다른, 오직 하나님께서 정의하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의 독생자 아들을 주셨다” (요한복음 3:16).

## 기도 제목:

-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
- 캠퍼스 사역, 교회, 리더십, 그리고 신자들 사이에 사랑이 넘치도록 기도하기.
- “아버지,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의 씩씩함, 비교, 비판, 그리고 서로에 대한 부주의함을 고백하나이다. 주님, 우리가 본받아야 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이루어 주소서. 이 금식과 기도의 때에 주님의 초자연적인 사역이 우리 캠퍼스 전체, 형제 자매 사이에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인종, 교단, 운동을 초월하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하소서. 아멘.”

## DAY 34

Steve는 기도 및 선교 동원 사역 WayMakers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들이 직면한 필요나 문제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 모임에 익숙해졌습니다. 이는 잘못된 것이 아니며,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아시고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순히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것 이상의, 훨씬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 세대 동안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을 약속하시고 펼쳐오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것 중에서 가장 경이롭고 거대한, 그리고 아름다운 일을 행하시려고 하심에 확신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아무도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것도 행하실 수 있으나,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왜일까요? 저는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찬양과 사랑을 받는 가장 좋아하는 방식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볼 때,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오순절 이전의 “다락 방(UPPER ROOM)” 기도 운동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4). 그들이 기도 모임에서 오직 성령의 부어짐만을 위해 기도했다고 생각한다면 오해입니다. 물론 그것도 그들의 기대 중 하나였으나, 그들은 성령의 부어짐을 하나님이 모든 백성과 모든 곳에서 이루실 약속의 한 멋진 부분으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방식으로 계속 모였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성전에 모였고, 규칙과 절제가 있는 집에서 정기적으로 모였습니다 (누가복음 24:33, 사도행전 2:46). 다락 방 기도 모임은 위기의 기도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위기 상황이 닥치면, 그들은 오순절 이전과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사도행전 4:24-31)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이 기도한 후, 그들이 모인 곳이 흔들리며,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 사도행전 4:31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다락방 기도 방식의 본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분명 성경 말씀을 토대로 기도하며, 시편 146:6(사도행전 4:24)에서 묘사된 대로 하나님을 예배했고, 또한 시편 2:1-2(사도행전 4:25-28)를 근거로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그들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오래 전에 약속하신 위대한 일을 계속하여 이루어 주실 것을 간구하였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단순히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어 ‘호모툼마돈(homothumadon)’ - 즉, 같은 열정과 갈망, 그리고 공동의 열정을 가지고 기도한 것을 의미합니다. 일부 번역에서는 단순히 “함께(prayer together)”만으로 번역되지만, 이 단어는 그들이 공유한 강한 열정과 열망까지도 포함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같이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확신하며, 신실하게 기다리는 열정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모든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광, 곧 “그리스도” 자체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 기도 제목:

-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성경을 바탕으로 위대한 것을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길 기도하기.
- 우리의 심장이 기도의 열망으로 불타올라 큰 소망과 갈망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시도록 기도하기.
-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 된 열정, 공유된 열의, 그리고 단합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기도를 드리기를 기도하기.

# DAY 35

그분의 은혜가  
완성할 것이다

STEPHEN CHEY

Stephen은 서울 New Creation  
Church의 목사입니다.

갈릴리 해안에서 사람들을 어부로 부르라는 압도적인 환상을 받은 베드로처럼, 우리도 도시에 부흥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환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처럼 최선을 다해보려 했으나, 실수와 고통스러운 실패를 겪으면서 “내가 정말 합당한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위로의 진리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이 굳건하다면 (빌립보서 1:5),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선한 일을 반드시 완성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좋은 일은 부흥이나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 자체보다, 우리가 내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변화를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빌립보서 1:9-11). 이 과정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며, 반드시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집중하게 합니다. 우리가 절망할 때 이 구절은 베드로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요한복음 21:15-22). 이 확신 속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맡기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수년 전, 저 역시 반대와 장애물 때문에 신학교를 떠나야 한다고 생각하며 절망에 빠졌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믿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제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느꼈습니다. 어느 날 밤,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빌립보서 1:6을 바탕으로 한 STEVE GREEN의 노래를 들었고, 그 노래를 수없이 반복하면서 “부흥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임을 깨닫게

“내가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것을 완성하실 것을 확신하노라.”

— 빌립보서 1:6

되었습니다. 그러던 후, 하나님의 은혜로 제 학업을 마칠 기회가 열렸고, 그 시간 동안 미래에 필요한 경험들을 하도록 인도받았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저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준비시키고 이끄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때로 우리의 마음은 부서져야 하고, 심지어 산산조각나야 하나님의 부드럽고 회복시키는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고쳐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 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 되어 부흥을 이루실 것입니다.

## 기도 제목:

- 지치거나 절망에 빠진 이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안에서 시작하신 좋은 일이 반드시 완성될 것을 확신하도록 기도하기.
- 교회가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가 되는 데 집중하도록 기도하기.
- 우리가 하나 된 교회로서, 각 캠퍼스와 나라에 부흥이 임할 준비가 된 그릇들이 되도록 기도하기.



# DAY 36

Milton은 인도 하이데라바드의 New Life Assembly of God Church의 청년 목사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기초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도움이 필요할 때 간구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토대가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든, 그 모든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에서 흘러나와야 합니다. 진정한 기독교 증언은 예수님과의 강한 개인적 관계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매일 하나님과의 대화와 성경 공부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게 도와줍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성경을 공부하는 것 외에도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주된 수단입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 우리의 소망, 염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의존을 표현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원하시는 것을 이루시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대한 관점과 방향을 주시는 길입니다.

기도는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준비시키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나에게 오려는 자는 아버지께서 이끄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응답을 이끌어내는 것은 여러분의 발표가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성령님은 신실한 기도에 응답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그들을 예수님 믿음으로 인도하십니다.

기도는 또한 다른 이들이 우리와 함께 동참하도록 준비시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생명을 잃어가는 무리를 보시고 “추수하실 주님께, 추수꾼을 보내 달라고

“너희는 기도에 힘쓰며  
깨어 있으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또,  
우리가 전하는 그리스도의  
신비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문을 열어  
달라고 기도하라.  
외부인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행동하라. 모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라.  
너희 말은 항상 은혜로  
충만하며 소금으로 간을  
맞추라. 이는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할지 알게  
하려 함이라.”

— 골로새서 4:2-6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의 수확은 굉장합니다. 남아시아는 전 세계 젊은이의 48%를 차지하는 최대 청년 인력이며, 매일 거의 10만 명의 청년이 취업시장에 진입합니다.

## 기도 제목:

- 학생들이 기도의 비밀, 즉 청년들을 전도하는 성공의 열쇠가 기도임을 깨닫도록 기도하기.
- 하나님께서 더 많은 젊은 일꾼들을 대학에서 일으켜 주시도록 기도하기.
- 모든 대학에 캠퍼스 모임이 활성화되도록 기도하기.



# DAY 37

## 예수님의 기쁨

JON HIETBRINK

Jon은 InterVarsity/USA의 부회장,  
EveryCampus 연합의 공동 창립자, 그리고  
Reviving Mission: Awakening to the  
Everyday Movement of God의 공동  
저자입니다.

“그 때 예수께서는 성령 안에서 온전히 기쁨으로 외치시기를,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당신을 찬양합니다. 당신은 지혜롭고 배움이 있는 자들에게는 숨겨진 것을, 어린아이들에게는 계시하셨습니다. 아버지, 이는 당신의 기쁨이었나이다. 모든 것이 아버지로부터 내게 위임되었나이다. 아무도 아들을 아버지 외에 알지 못하며, 오직 아들과 아들이 그를 나타내고자 하는 이들에게만 아버지를 아는 줄을 알리라.’ 그리고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돌아보며,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들이 복이 있도다’라고 은밀하게 말씀하셨다.”

— 누가복음 10:21-23

영향력 있는 삶을 사는 것만큼 좋은 일이 없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가장 큰 축복은 목적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한 인격체를 만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처음에 7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온 광대한 장면으로 시작되지만, 점점 초점은 두 번 좁아집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성령님 안에서 온전히 기쁨으로” 계셨다는 독특한 묘사입니다. 이는 복음서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누가가 “제자들에게 은밀히 ‘너희 눈이 보는 것이 복되다’고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제자들은 그 순간 많은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 받고, 하나님의 진리로

변화되며, 하나님의 권위로 어둠에서 건져진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들이 본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군중의 증가나 공동체의 결속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쁨 가득한 얼굴,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미소 지으며 자신들을 바라보시는 모습을 나타낸다고 제시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얼굴을 마주보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요한계시록 22:3-4에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가 그 도성 안에 있을 것이며,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길 것이며, 그들은 그의 얼굴을 볼 것이고 그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기록될 것이다”라는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 기도 제목:

-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여 주셔서, 그 미소를 볼 수 있도록 기도하기.
-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도록 기도하기.
-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를 일상 선교자로 세워,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게 하도록 기도하기.

# DAY 38

Jimmy와 그의 아내 Laura, 그리고 친구들이 1987년에 Antioch Ministries International을, 1999년에 Waco, Texas에서 Antioch Community Church를 창립했습니다.

1991년, 우리 팀은 70년간의 공산주의 통치가 끝난 후 영적 부흥의 시기를 맞이한 불가리아 VELIKO TARNOVO에서 현지 대학생들과 함께 사역했습니다. 매일 드라마를 공연하고, 설교하며, 병든 이를 위해 기도하여 수백 명이 처음으로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느 저녁, 오후 5시경에 우리의 전도를 마무리하려던 때, 한 불가리아 대학생이 내 어깨를 붙잡고 “당신은 어디로 가십니까?”라고 물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그렇게 서두르시나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 내 마음은 깊이 감동하여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여기 머물겠습니다.”라고 대답했고, 그 밤은 우리 사역 중 가장 강력한 전도 중 하나였습니다. 무슬림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며, 온 가족이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으리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 사도행전 1:8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부르심을 상기시킵니다. 우리의 캠퍼스에는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채워 주셔서, 담대한 증인이 되어 고통과 필요 속에서도 그분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 기도 제목:

- 우리와 우리 친구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총만해져서, 캠퍼스에서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하도록 기도하기 (사도행전 1:8).
- 복음 전도자들이 다수의 사람들을 향해 사랑과 설교, 선포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용기를 주시길 기도하기 (마태복음 9:35-38).
- 개인을 넘어서 온 캠퍼스에 성령의 부어짐이 임하여 부흥이 일어나도록 기도하기 (이사야 64:1-4).

# DAY 39

## 선교와 기도 운동의 융합

DICK EASTMAN

Dick Eastman은 *Every Home for Christ*의 명예 회장이며, 미국 내 *National Prayer Committee*의 창립 멤버이기도 합니다.

2012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세계 기도 집회에 90개국의 대표들이 모였을 때, 기도와 선교 운동의 글로벌 연합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저는 에스겔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와 주변 민족들을 치유하는 강한 강의 '회복의 강(HEALING RIVER)'의 인상을 보며 감명을 받았습니다 (에스겔 47:1-9). 에스겔은 성전에서 두 개의 개울이 나오다가 하나로 합쳐져 점점 깊어지는 강을 그렸습니다. 그 강의 목적은 민족을 치유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신학자 매튜 헨리는 "이 물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상징하며, 예루살렘에서 퍼져 나간 성령님의 선물과 능력을 나타낸다. 그리스도는 성전이요 문이다. 그분의 찢림받으신 옆에서 생명이 흘러나온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비록 매튜 헨리의 해석을 단순 상징으로 볼 수도 있으나, 저는 기도와 선교 운동이 더욱 강력한 시너지와 집중 속에 연합되면서 세계 각지에서 열매를 맺는 모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34년 동안 이끈 EVERY HOME FOR CHRIST 사역은 국제 본부(제리코 센터)의 건립을 통해 밤낮으로 예배와 기도가 결합된 기도 사역의 강력한 움직임을 목격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기도와 선교의 연결고리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많은 성도들이 지상대명령(마태복음 28:19)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19장 전,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의

**“세상 모든 곳에 너희의 길을 밝히게 하사, 모든 이가 주의 길을 발견하고 주를 아며, 주의 구원의 능력을 보게 하라!”**

— 시편 67:2

주님께, 그분의 발에 일꾼들을 보내 달라고 기도하라” (마태복음 9:37-38)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명령”입니다. 강력한 기도가 있지 않다면 “가라, 모든 나라에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역사상의 거대한 최후의 추수에 필요한 수많은 일꾼을 동원하는 데 결정적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기도가 얼마나 동원되느냐가 곧 세계 복음화의 정도를 결정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 기도 제목:

- 모든 캠퍼스에서 “기도의 영향력 있는 자들(prayer influencers)”이 일어나도록 기도하기.
- 모든 대학에 학생들이 매일 모여 기도할 수 있는 캠퍼스 기도실이 마련되도록 기도하기.
- 전 세계의 지역 교회들이 Collegiate Day of Prayer에 적극 참여하도록 기도하기.

# DAY 40

Jason은 International Prayer Connect의 디렉터로, 전 세계 기도 네트워크를 이끌며 민족들이 연합하여 예수님의 영광을 높이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1722년 박해를 받던 여러 모라비안 가정이 동독으로 도피하여 부유한 귀족 Count Zinzendorf의 영지에 작은 공동체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Count Zinzendorf는 이 공동체에 “Herrnhut(여호와께서 거하시는 곳)”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찼으며 대학생 시절에 이미 7개의 기도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5년 후 이 작은 모라비안 공동체는 1727년 8월 13일 강력한 성령님의 방문을 경험하였습니다. 이 경험은 “사랑의 침례”로 묘사되었는데,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마음에 넘치며 서로에 대한 사랑으로 흘러나왔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5). 예전에는 분열되어 있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가 되어 서로의 짐을 나누고 용서하며 서로를 존중하고, 가족처럼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흥 시즌 동안 주님은 레위기 6:13의 말씀을 통해 Zinzendorf에게 “제단에 불이 결코 꺼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한 감사를 담아, 그들은 밤낮으로 끊임없이 기도와 예배로 응답하였고, 24시간 7일 기도 체인으로 연결되어 100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Zinzendorf와 모라비안인들에게 기도는 가장 중요한 사랑의 관계의 대화 부분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토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모라비안인들은 하나님의 보좌 주위 매일 전 세계적으로 기도하며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에게 온 세상을 상속으로 주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시편 2:8).

이러한 예수님을 높이는 기도의 터에서는 하나님께서

“**칠지 못할 어린 양의  
능력과 부, 지혜, 힘,  
존귀, 영광, 복을 받기에  
합당하다!**”

— 요한계시록 5:12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일어나실 선교사들을 세우기 시작하셨습니다. 300명 이상의 선교사들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부르심에 응답하였으며, 최초 선교사 중 두 명은 서인도 제도에 있는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자신들을 노예로 팔리기도 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들은 전 세계에 5,000개 이상의 선교 공동체를 세우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 강력한 모라비안 운동을 되새기며 Dick Eastman의 말이 생각납니다. “기도가 얼마나 동원되느냐가 곧 세계가 복음화되는 정도이다.”

이번 Collegiate Day of Prayer에, 하나님께서 전 세계 대학 캠퍼스에서 기도 하나됨 부흥 선교의 현대 모라비안 운동을 일으키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는 그의 아들의 상처를 항상 보시며, 이 세대에게 “내 아들에게 그분의 고난에 합당한 보상을 내릴 것인가?”라는 질문을 하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합당한 보상이 어린 양에게 주어지길 원하노라!**”

## 기도 제목:

- 대학생들이 캠퍼스에서 예배 기반 기도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기.
- 새롭고 신선한 선교 열정을 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상으로 나아갈 학생들을 일으켜 달라고 기도하기.
-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영광에 대한 날카로운 계시로 이 세대를 “관통해” 주시기를 기도하기.

